2019년 3월 20일
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표

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

서울대학교 경제학부
이 철 희

발표내용

-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왜 감소하였는가?
- 장래 출생아 수 변화 전망은?
- 왜 결혼이 줄어드는가?
- 인구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?
-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: 교육, 의료 등

신생아 수 감소 요인 분석과 장래 전망

신생아 수 변화 분해방법

이철희 (2018b)

$$TB_t = \sum_{a=15}^{49} \left(\frac{B_t^a}{P_t^a}\right) P_t^a$$

$$TB_t = \sum_{a=15}^{49} \left[\left(\frac{M_t^a}{P_t^a}\right)\left(\frac{B_{M,t}^a}{M_t^a}\right) + \left(1 - \frac{M_t^a}{P_t^a}\right)\left(\frac{B_{N,t}^a}{P_t^a - M_t^a}\right)\right] P_t^a$$

$$= \sum_{a=15}^{49} \left[m_t^a f_{m,t}^a + (1 - m_t^a) f_{n,t}^a\right] P_t^a$$

TB: 총 신생아 수; B^a: 여성연령별 출생아 수, P^a: 연령별 여성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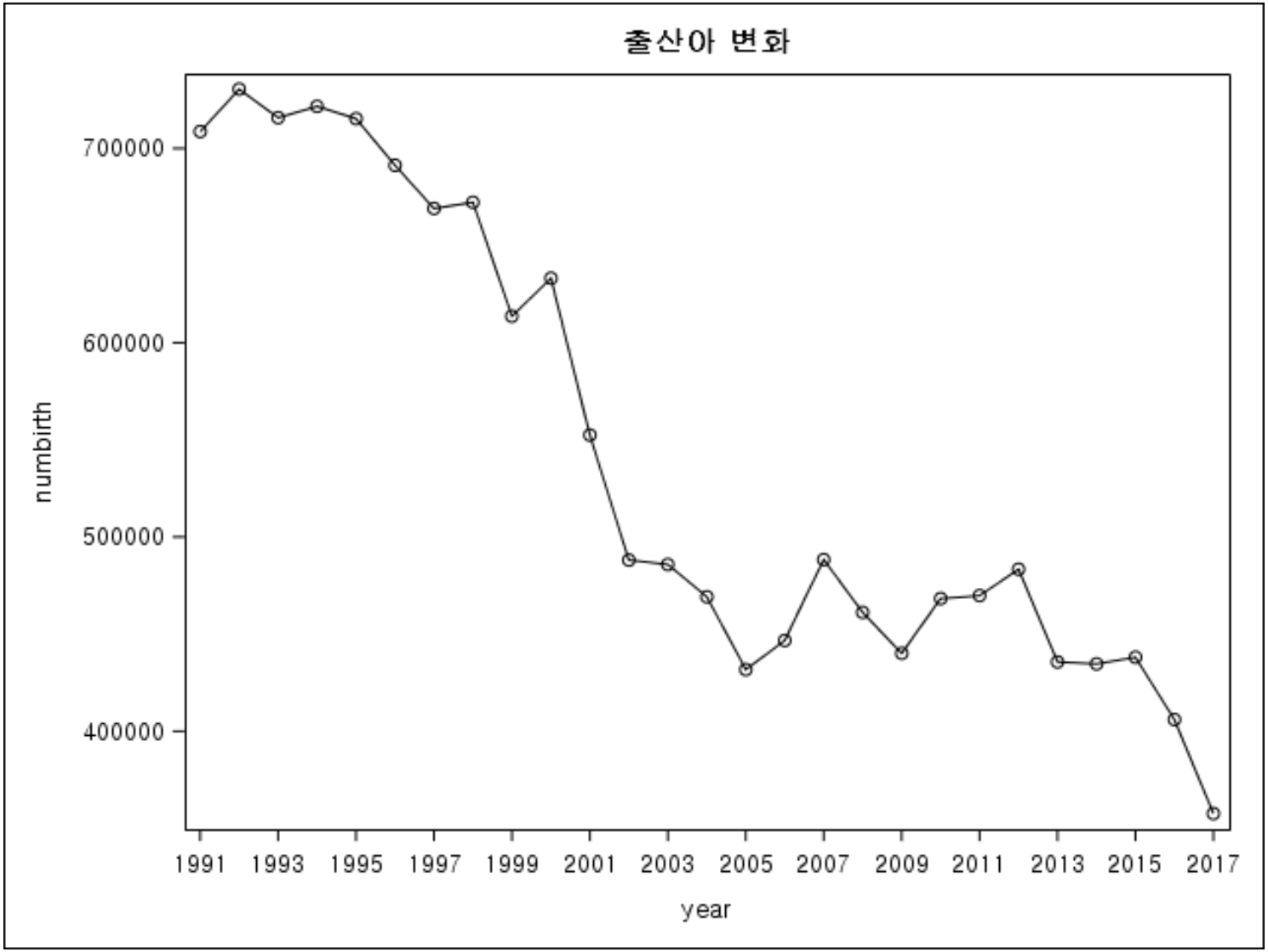
M^a: 연령별 유배우 여성 수

여성연령별 출생아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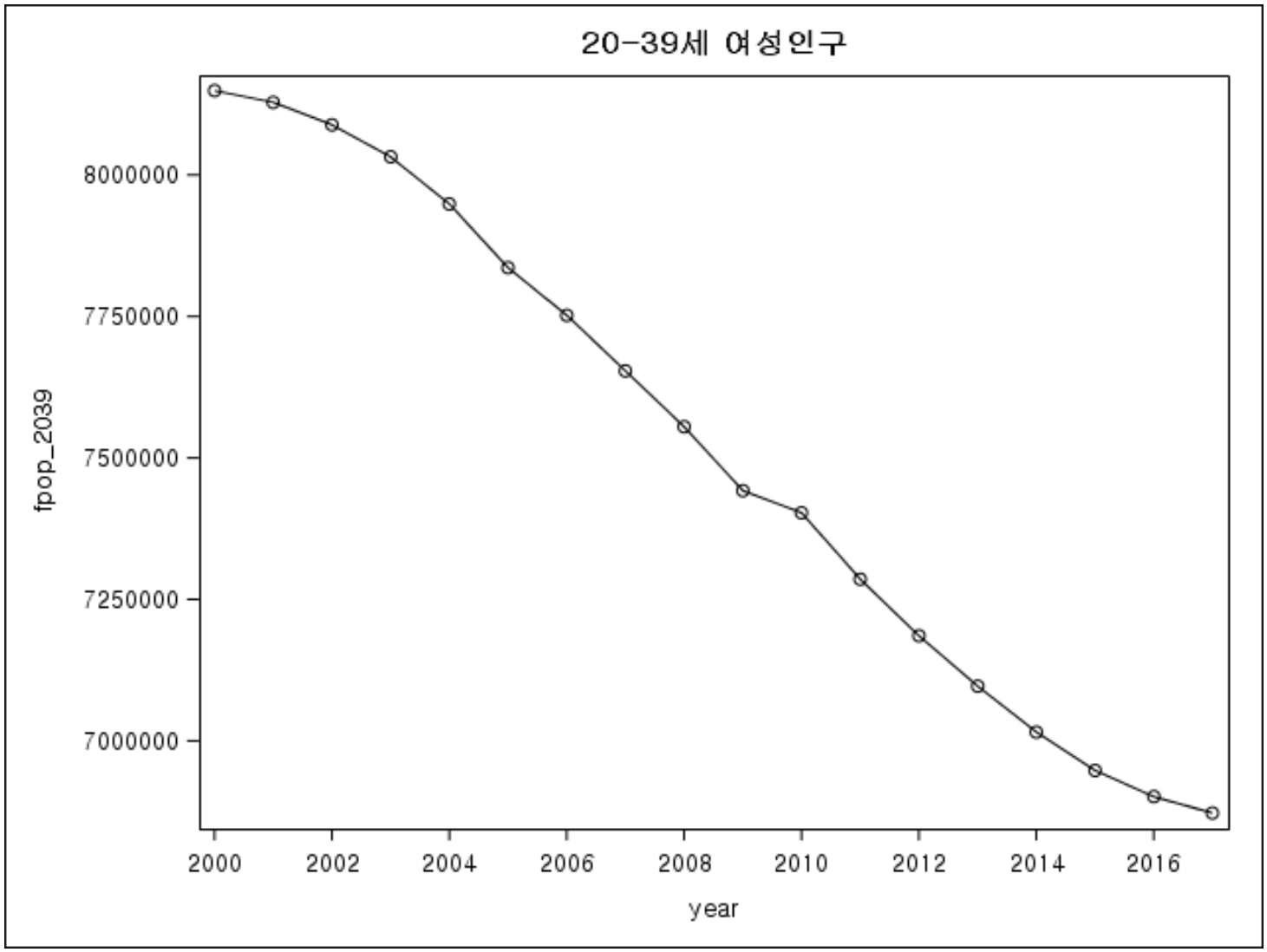
= (연령별 유배우 비율 ×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× 연령별 여성인구)

+ 무배우 출생아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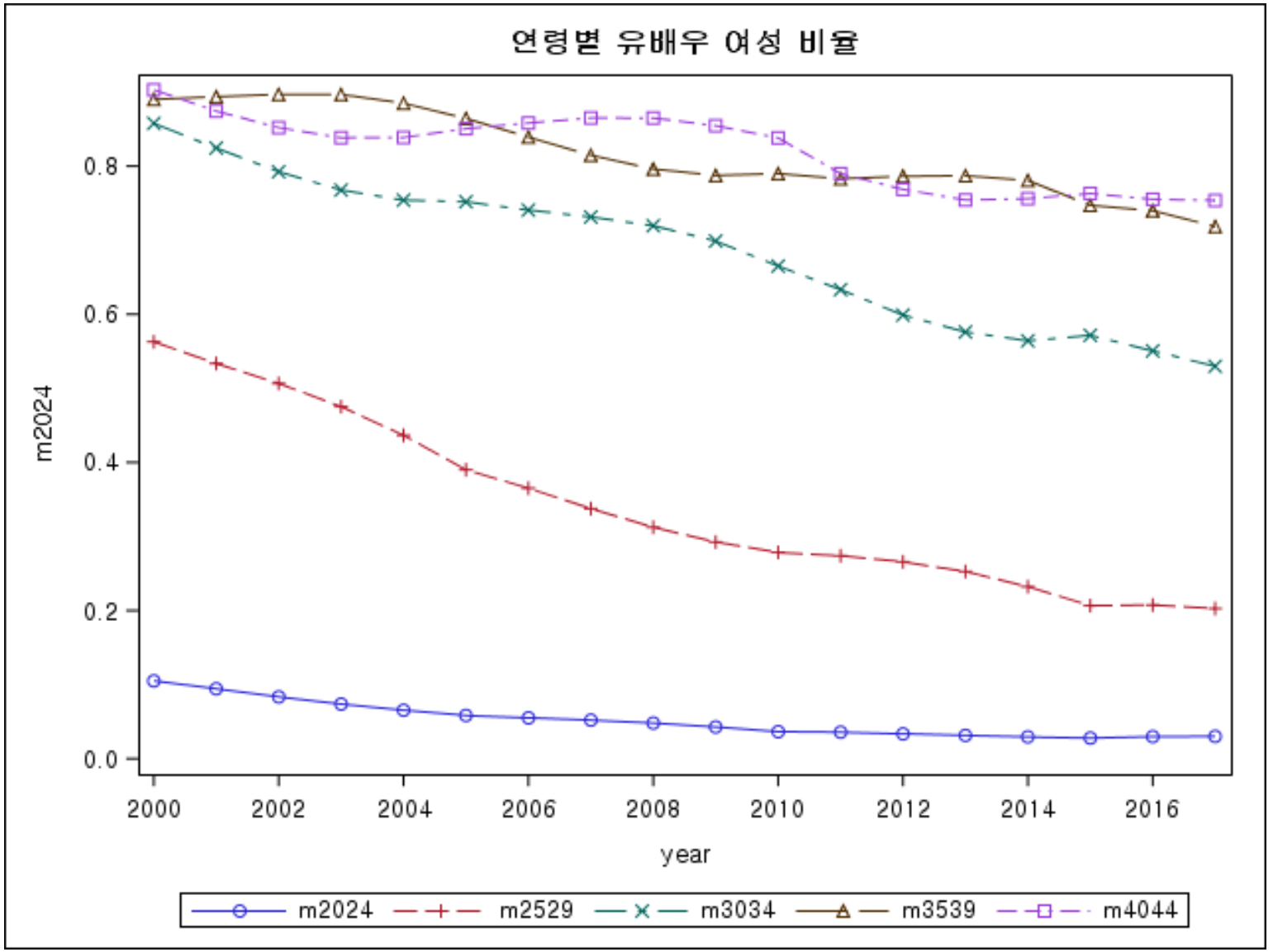
1991~2017년 신생아 수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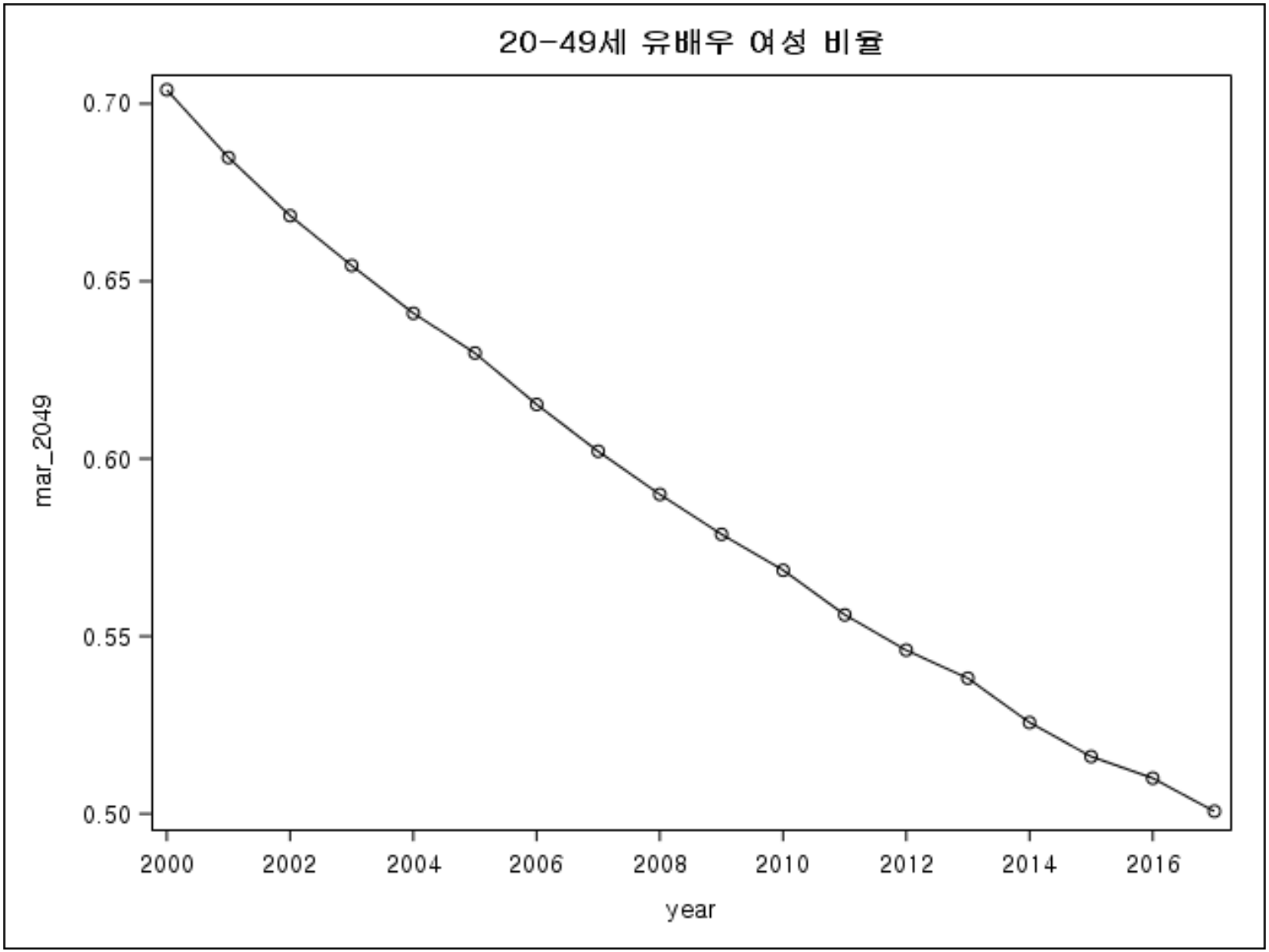
20~39세 여성인구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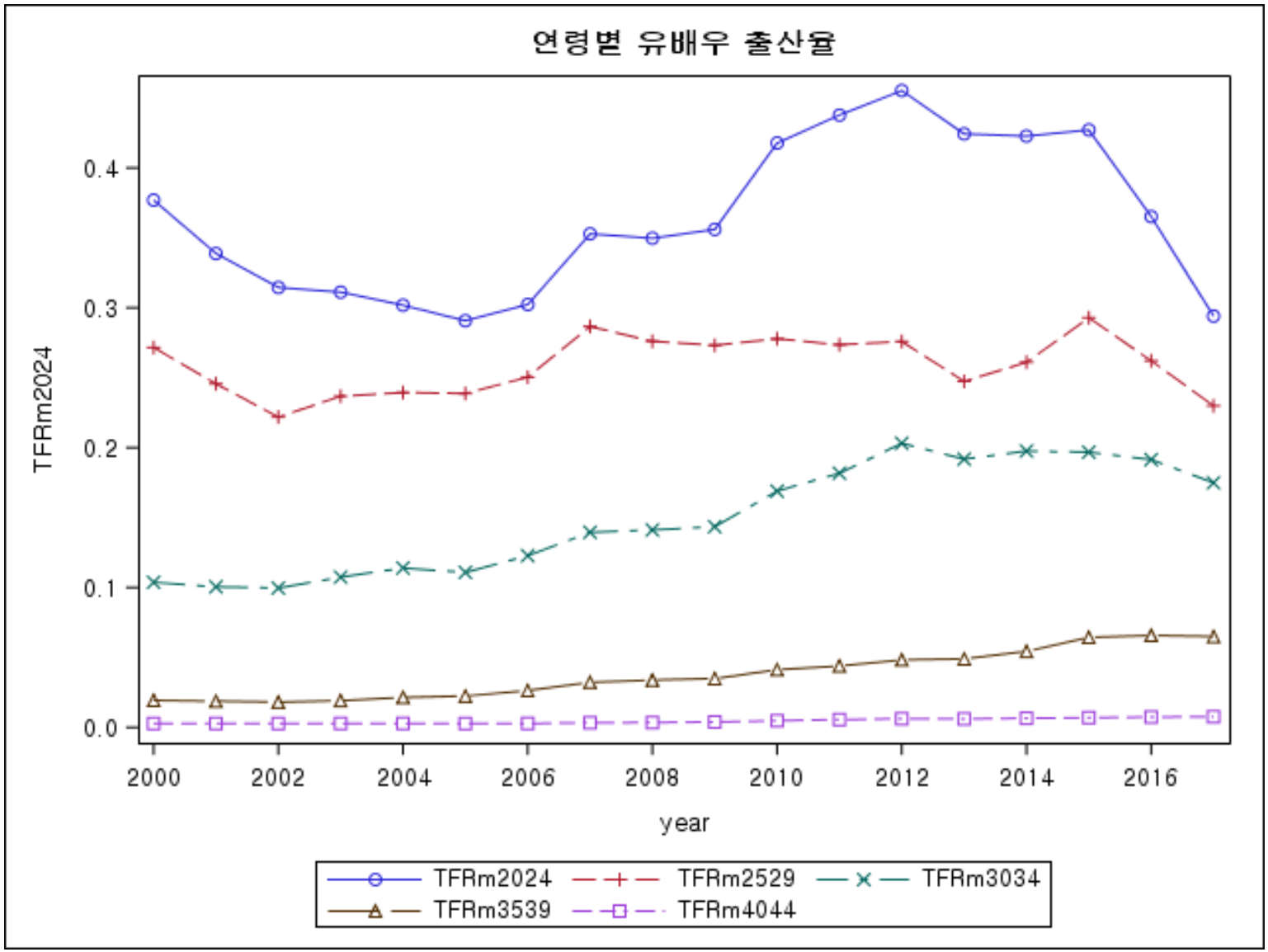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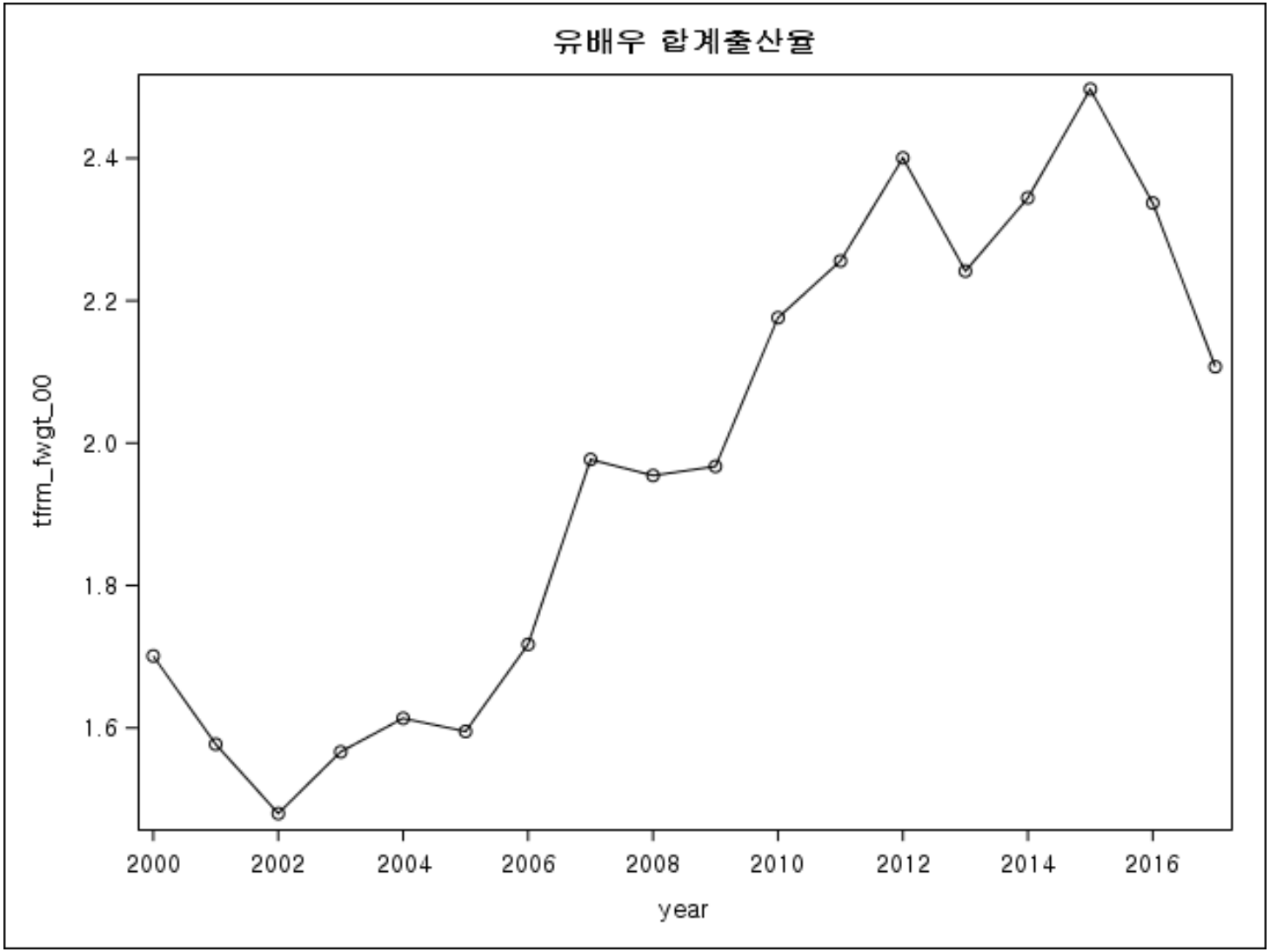
20~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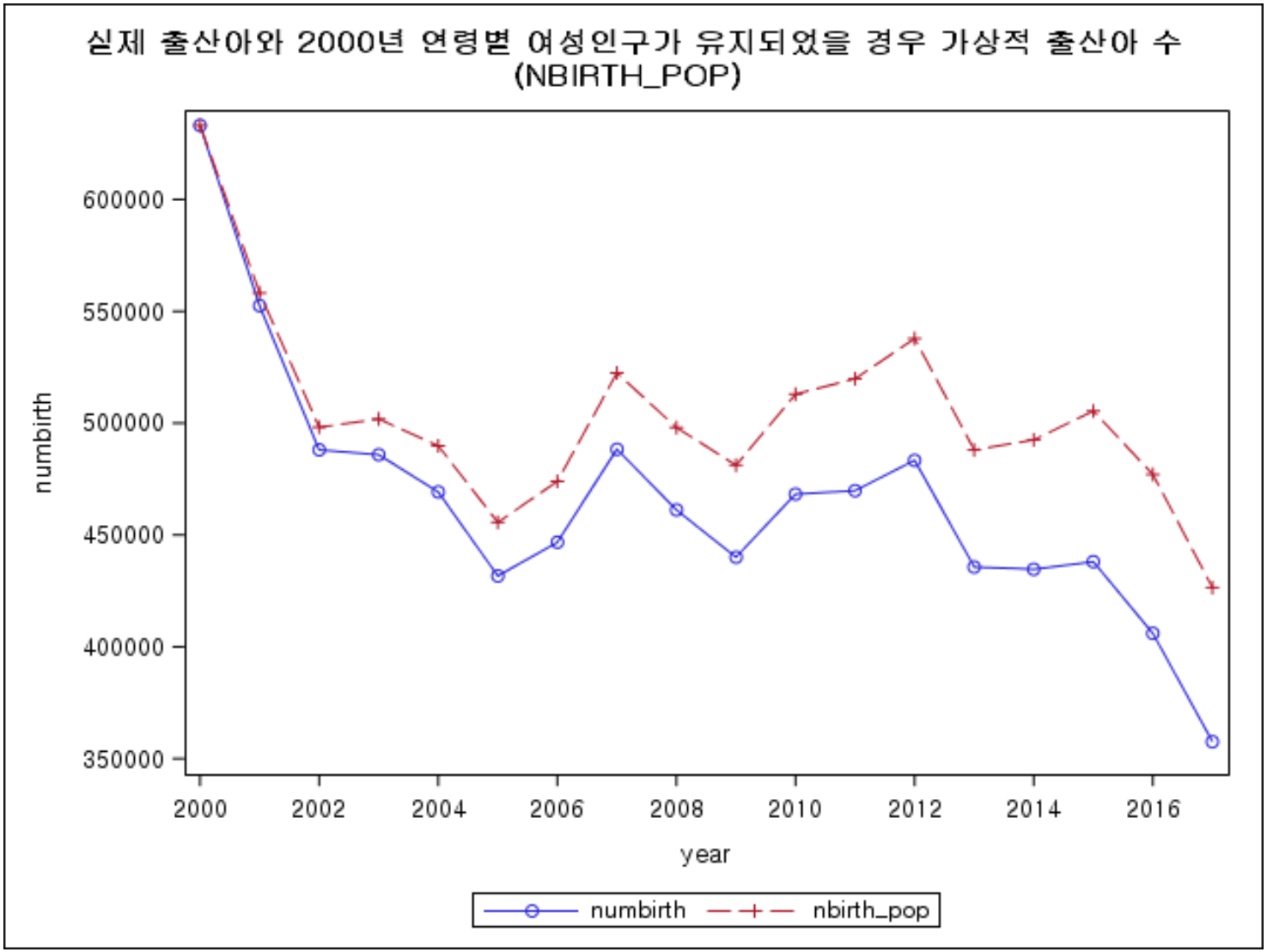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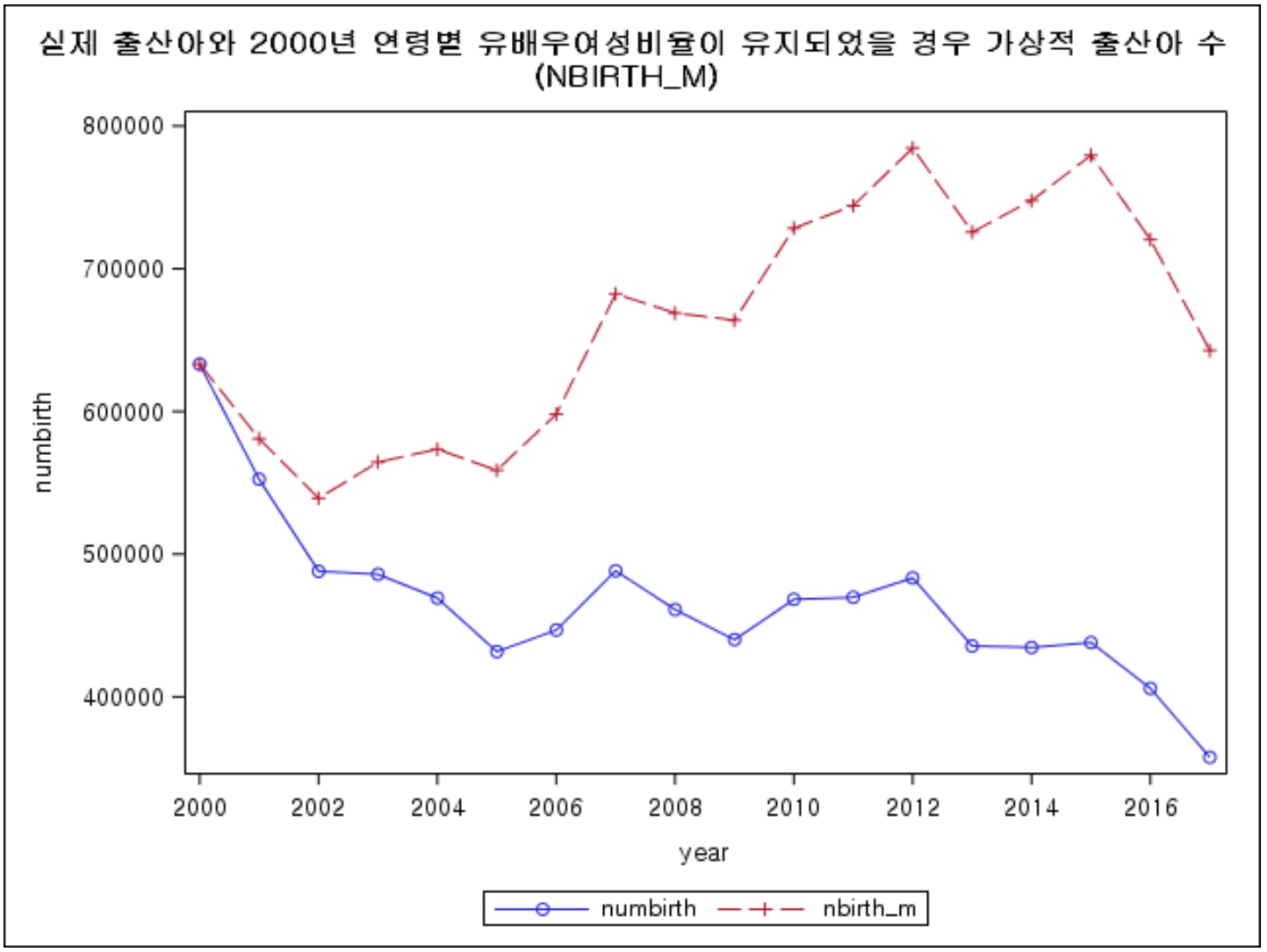
2000년 혼인패턴 유지시 유배우 여성 기대합계출산율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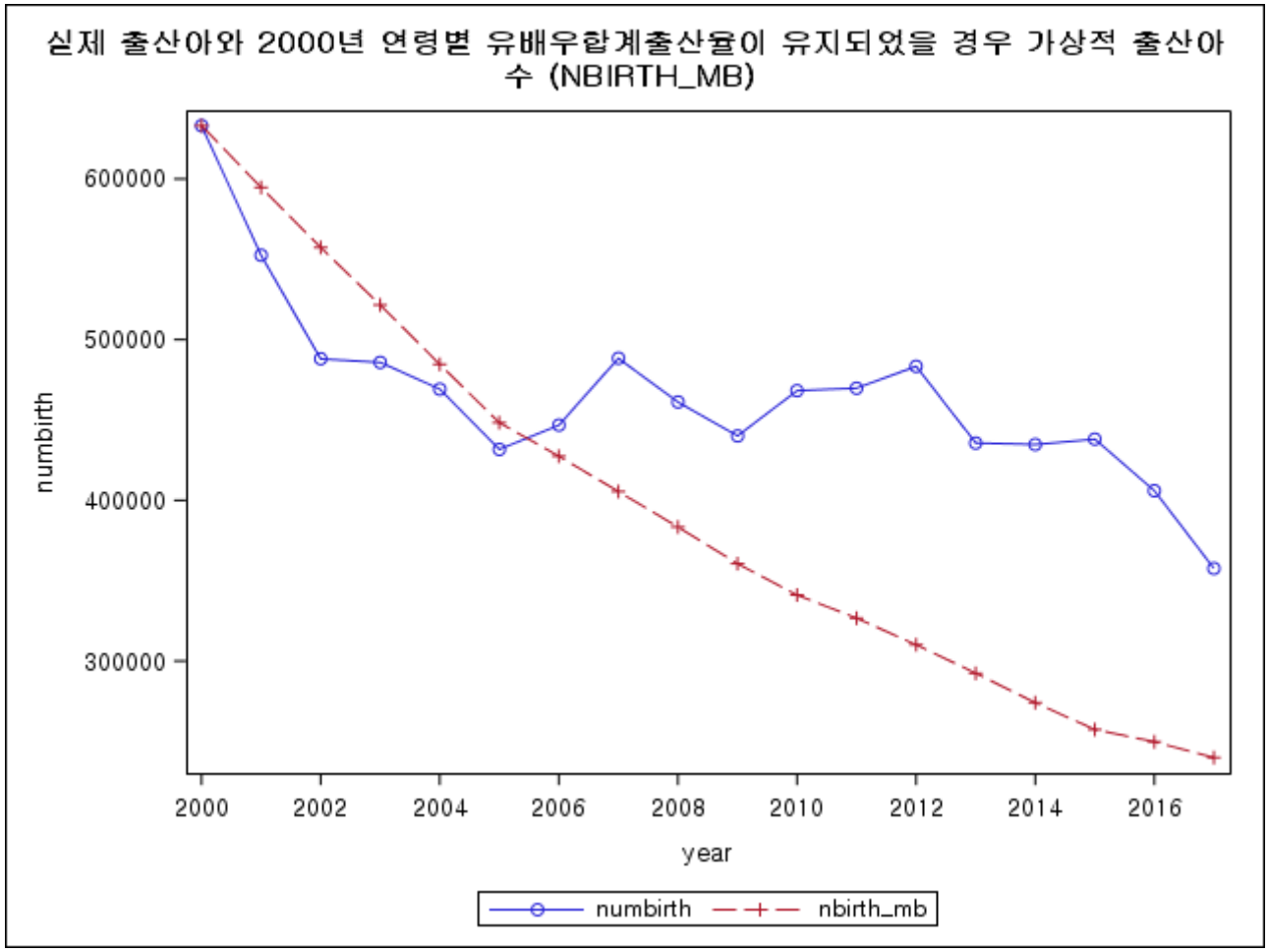
2000년 연령별 여성인구 유지 시 가상적 신생아 수 변화



2000년 유배우 여성 비율 유지 시 가상적인 신생아 수 변화



2000년 유배우 출산율 유지 시 가상적인 신생아 수 변화



2000년~2017년 신생아 수 변화 분해 (이철희 2018b)

	(△B:-275,523)	
	△B 기여	기여도(%)
전체 가임기 여성인구	-68,868	25.00
15-19세 여성인구	-404	0.15
20-24세 여성인구	-2,032	0.74
25-29세 여성인구	-26,641	9.68
30-34세 여성인구	-33,193	12.05
35-39세 여성인구	-7,089	2.57
40-44세 여성인구	349	-0.13
45-49세 여성인구	140	-0.05
전체 유배우 비율	-285,121	103.48
15-19세 유배우 비율	-737	0.27
20-24세 유배우 비율	-36,242	13.15
25-29세 유배우 비율	-128,491	46.64
30-34세 유배우 비율	-97,066	35.23
35-39세 유배우 비율	-20,552	7.46
40-44세 유배우 비율	-1,984	0.72
45-49세 유배우 비율	-50	0.02
전체 유배우 출산율	117,722	-42.73
15-19세 유배우 출산율	-855	0.31
20-24세 유배우 출산율	-4,111	1.49
25-29세 유배우 출산율	-13,179	4.78
30-34세 유배우 출산율	64,721	-23.49
35-39세 유배우 출산율	63,717	-23.13
40-44세 유배우 출산율	7,432	2.70
45-49세 유배우 출산율	-3	0.00
전체 무배우 출산율	-2,994	0.98

2000년~2017년 신생아 수 변화 분해: 기간별 (이철희 2018b)

	2000-2005 (△B: -201,418)		2005-2012 (△B: 51,665)		2012-2017 (△B: -125,771)	
	△B 기여	기여도(%)	△B 기여	기여도(%)	△B 기여	기여도(%)
전체 가임기 여성인구	-23,941	11.87	-36,118	-69.91	-29,808	23.7
15-19세 여성인구	-520	0.26	217	0.42	-162	0.13
20-24세 여성인구	-958	0.48	-4,732	-9.16	933	-0.74
25-29세 여성인구	-24,092	11.96	-11,788	-22.82	-7,026	5.59
30-34세 여성인구	1,688	-0.84	-18,498	-35.81	-20,733	16.49
35-39세 여성인구	-414	0.21	-1,880	-3.64	-2,241	1.78
40-44세 여성인구	263	-0.13	543	1.05	-607	0.48
45-49세 여성인구	94	-0.05	20	0.04	29	-0.02
전체 유배우 비율	-127,075	63.09	-142,854	-276.50	-67,301	53.51
15-19세 유배우 비율	-1,351	0.67	-759	-1.47	-467	0.37
20-24세 유배우 비율	-24,452	12.14	-17,005	-32.91	-5,024	3.99
25-29세 유배우 비율	-76,523	37.99	-58,132	-112.52	-24,379	19.38
30-34세 유배우 비율	-23,629	11.73	-59,220	-114.62	-29,450	23.42
35-39세 유배우 비율	-962	0.48	-6,874	-13.31	-6,982	5.55
40-44세 유배우 비율	-150	0.07	-857	-1.66	-993	0.79
45-49세 유배우 비율	-5	0.00	-6	-0.01	-6	0.00
전체 유배우 출산율	-16,612	8.25	179,651	347.72	-9,538	7.58
15-19세 유배우 출산율	-74	0.04	125	0.24	-130	0.10
20-24세 유배우 출산율	-9,089	4.51	8,371	16.20	-3702	2.94
25-29세 유배우 출산율	-23,891	11.86	16,867	32.65	-12,762	10.15
30-34세 유배우 출산율	11,151	-5.54	107,289	207.66	-17,022	13.53
35-39세 유배우 출산율	5,373	-2.67	41,226	79.80	21,383	-17.00
40-44세 유배우 출산율	-36	0.02	5,757	11.14	2,681	-2.13
45-49세 유배우 출산율	-45	0.02	16	0.3	15	-0.01
전체 무배우 출산율	-1,243	0.62	1,784	3.45	-3,264	2.59

2012년~2017년 신생아 수 변화 분해: 기간별 (이철희 2018b)

	2012-2015 (△B: -45,318)		2015-2017 (△B: -80,453)	
	△B 기여	기여도(%)	△B 기여	기여도(%)
전체 가임기 여성인구	-18,666	41.19	-12,027	14.95
15-19세 여성인구	-101	0.22	-70	0.09
20-24세 여성인구	873	-1.93	218	-0.27
25-29세 여성인구	-10,159	22.42	148	-0.18
30-34세 여성인구	-4,050	8.94	-14,890	18.51
35-39세 여성인구	-5,447	12.02	2,990	-3.72
40-44세 여성인구	205	-0.45	-446	0.55
45-49세 여성인구	13	-0.03	25	-0.03
전체 유배우 비율	-66,262	146.22	-15,954	19.83
15-19세 유배우 비율	-3,057	6.75	296	-0.37
20-24세 유배우 비율	-8,702	19.20	1,068	-1.33
25-29세 유배우 비율	-28,989	63.97	-1,388	1.72
30-34세 유배우 비율	-21,293	46.99	-12,375	15.38
35-39세 유배우 비율	-3,396	7.49	-3,425	4.26
40-44세 유배우 비율	-824	1.82	-126	0.16
45-49세 유배우 비율	-1	0.00	-4	0.00
전체 유배우 출산율	36,494	-80.53	-48,029	59.70
15-19세 유배우 출산율	790	-1.74	-1,663	2.07
20-24세 유배우 출산율	2,639	-5.82	-6,526	8.11
25-29세 유배우 출산율	7,197	-15.88	-19,046	23.67
30-34세 유배우 출산율	3,454	-7.62	-22,453	27.91
35-39세 유배우 출산율	20,629	-45.52	936	-1.16
40-44세 유배우 출산율	1,835	-4.05	658	-0.82
45-49세 유배우 출산율	-51	0.11	66	-0.08
전체 무배우 출산율	-2,778	6.13	-468	0.58

2000년 이후 신생아 수 변화 요인: 결과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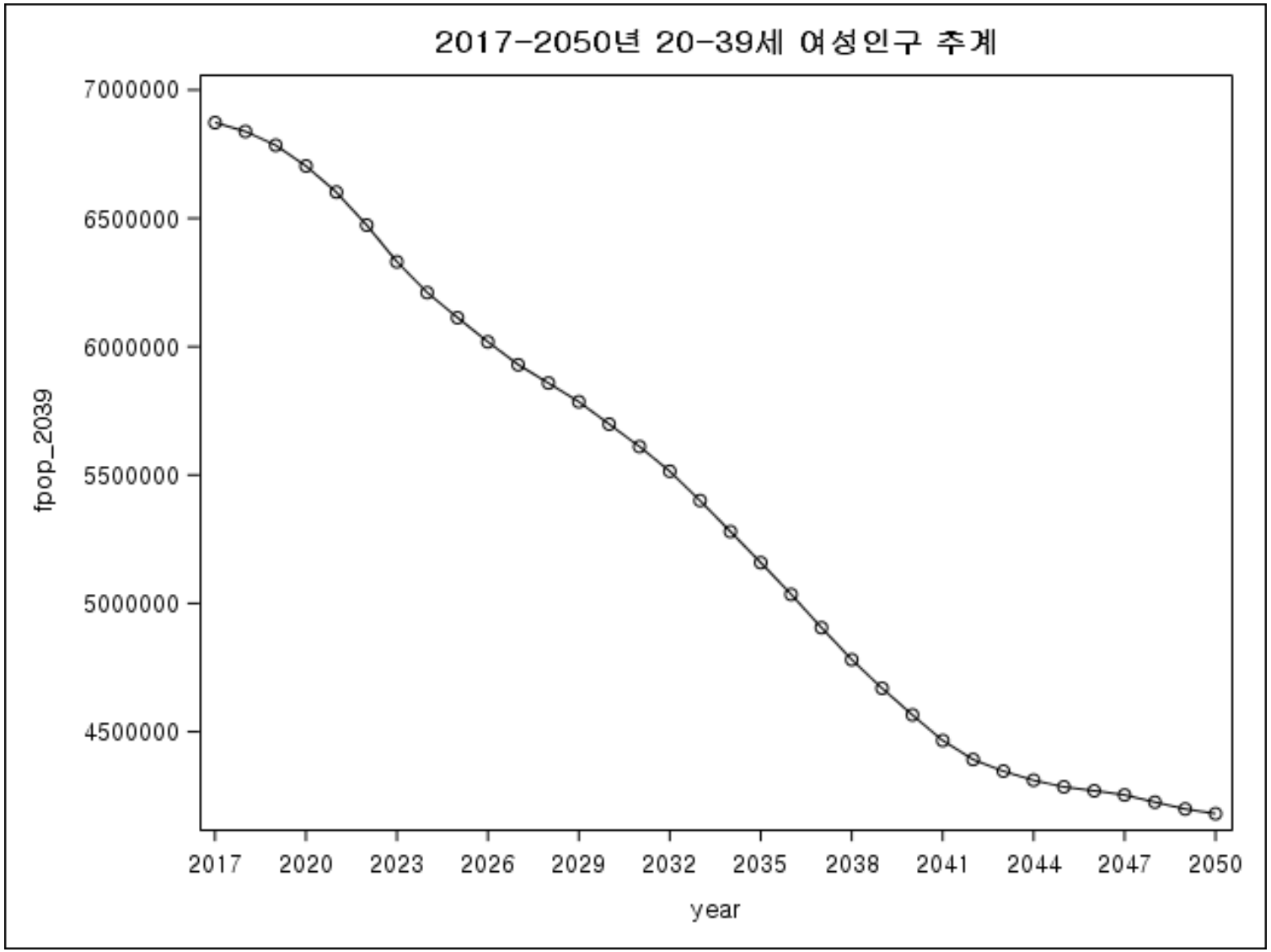
- 전체기간(2000년~2017년): 약 276,000명 감소
  - 대부분 유배우 비율 감소(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)에 기인함. 여성인구 감소도 25% 설명.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(특히 30대) 신생아 수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(-43%)
- 2000년~2005년: 약 201,000명 감소
  - 유배우 비율 감소가 2/3 설명, 여성인구감소와 유배우출산율 감소가 조역.
- 2005년~2012년: 약 52,000명 증가
  - 유배우 비율 큰 폭으로 감소하여 출산아 수 줄이는 역할(-277%). 여성인구감소도 같은 방향의 효과(-70%). 그러나 가파른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이를 압도하여(348%) 출산아 증가.
- 2012년~2017년: 약 126,000명 감소
  - 세 요인 모두 출산아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 변화. 유배우 비율 변화의 효과가 가장 중요(54%). 여성인구 감소 효과도 ¼ 설명.
- 최근 2년(2015~2017년): 8만명 이상 감소
  - 과거와 달리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주된 요인(60%)

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한 신생아 수 전망

- 인구전망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초.
- 기존(2016년)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지나치게 낙관적.
  - 금년 3월에 나올 신규 추계는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기대.
- 2015년 이후 출생아 수 변화 추이는 장래인구 저위추계를 밑돌고 있음.
- 유배우 비율은 지난 25년 동안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.
- 몇 년 전부터 유배우 출산율도 감소하기 시작
-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.
- 대안적인 시나리오
  - 2017년의 연령별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유지
  - 비관적인 시나리오 1: 과거 10년 동안 관찰된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된 후 유지.
  - 비관적인 시나리오 2: 시나리오 1 + 과거 5년 동안 관찰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감소가 향후 5년 동안 지속된 후 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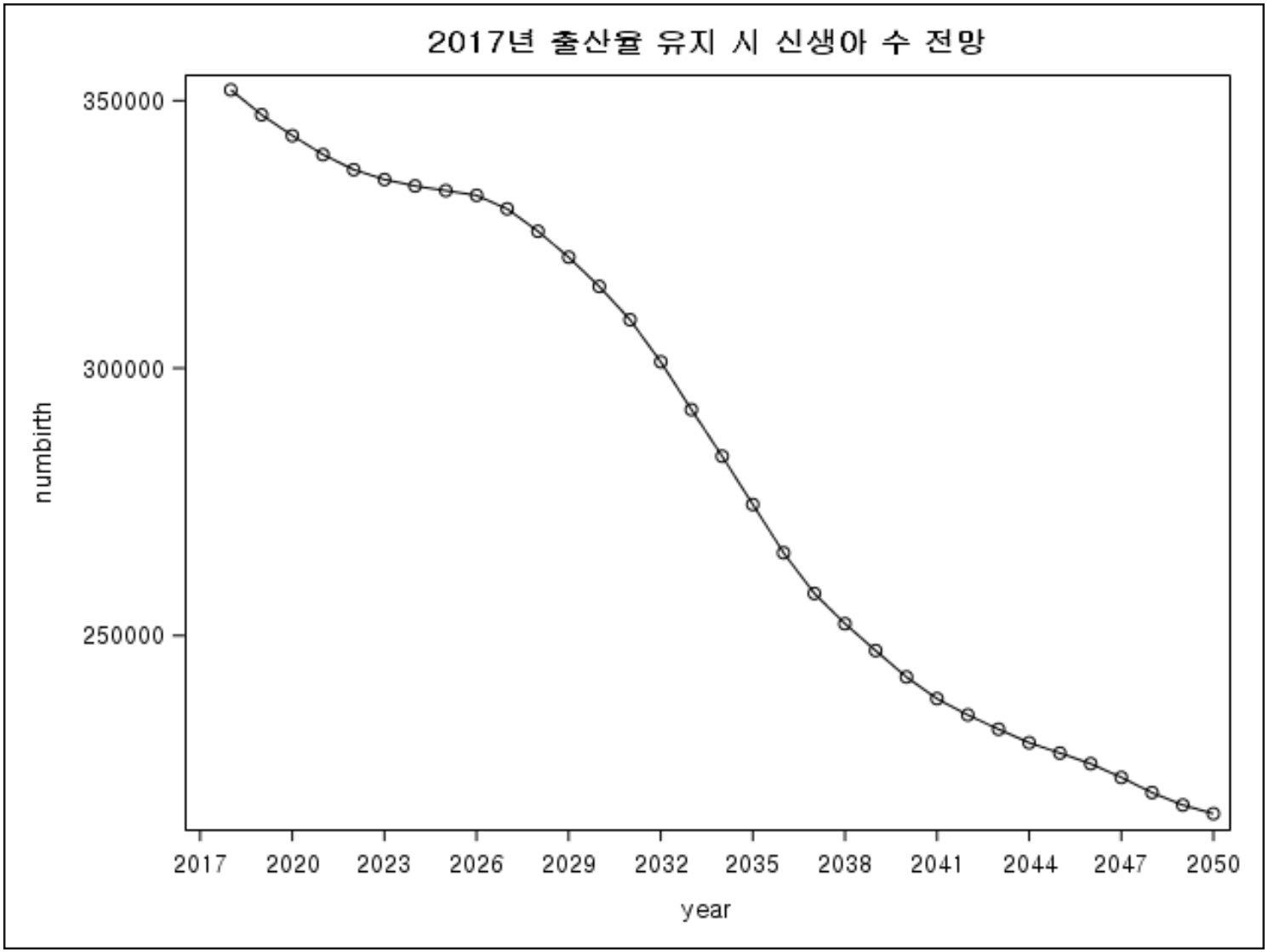
2017년~2050년 20-39세 여성인구 추계

2016년 690만 → 2040년 457만 → 2050년 418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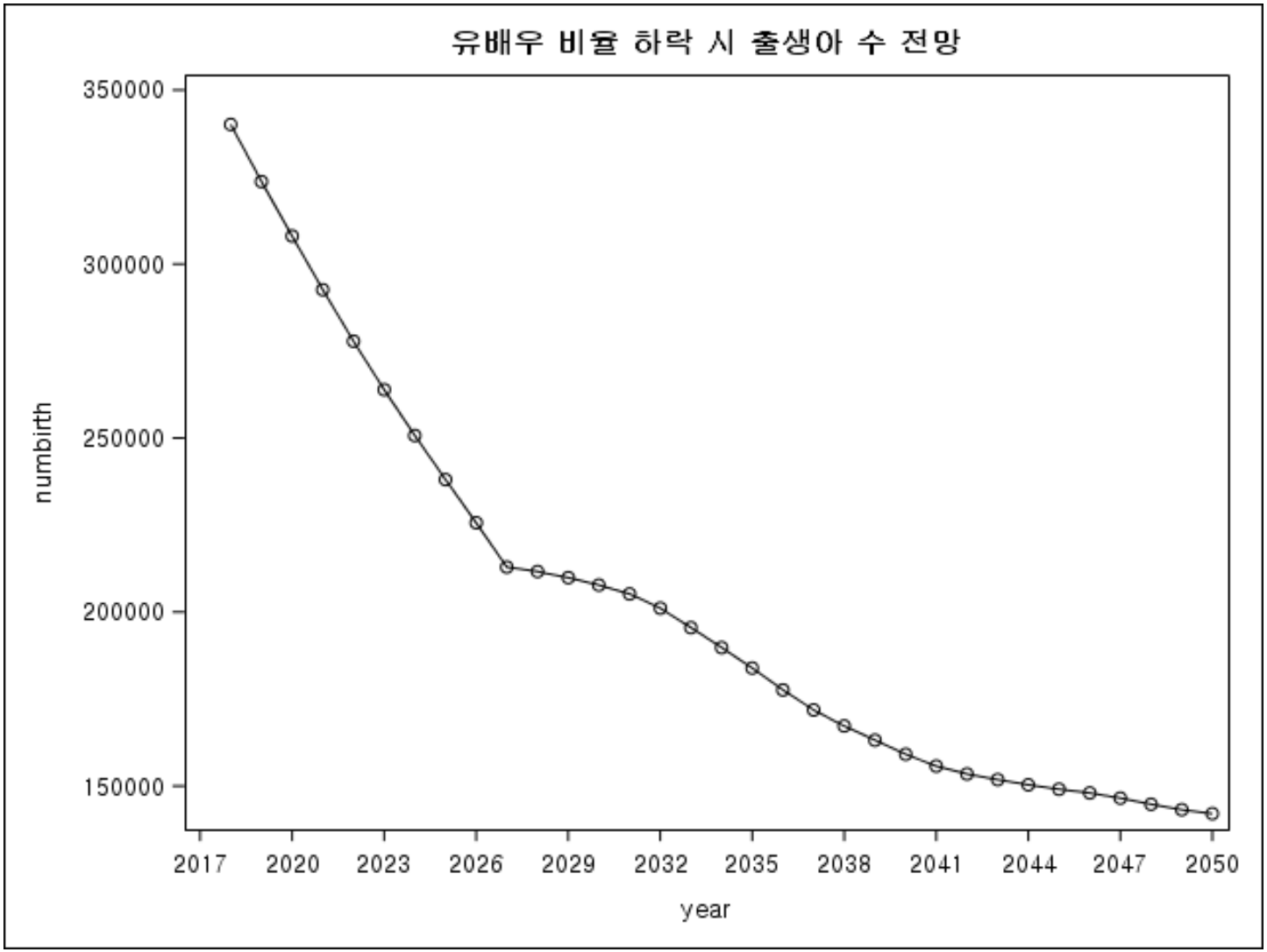
2017년 출산율 유지 시 출생아 수 변화 전망

2033년 292,000명 → 2042년 235,000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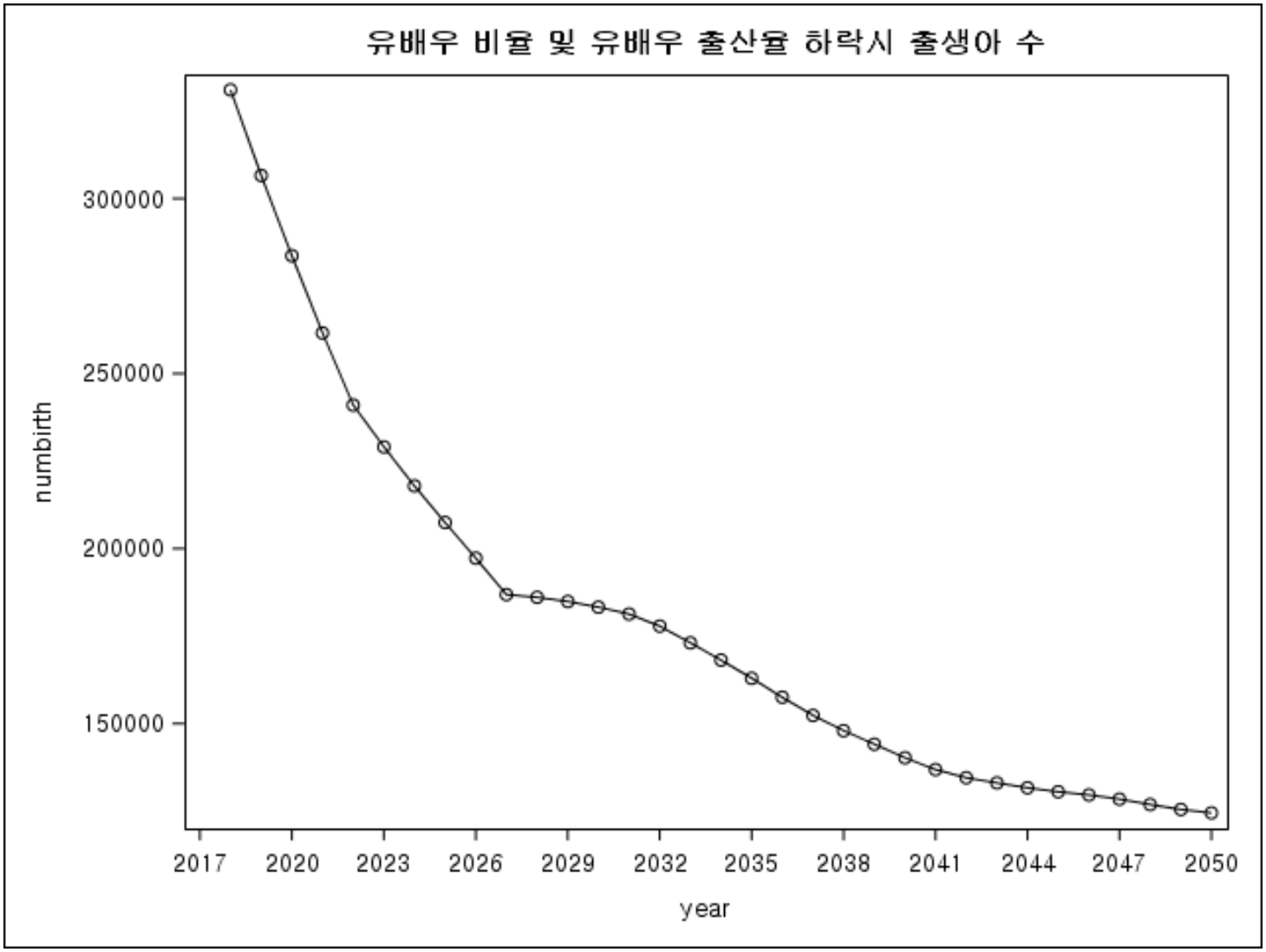
과거 10년 추세로 향후 10년간 연령별 유배우 비율 하락 시 신생아 수 변화 전망

2021년293,000명 → 2033년 196,000명 →2042년 153,000명



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모두 하락 시 신생아 수 변화 전망

2020년 284,000명 → 2026년 197,000명 → 2042년 135,000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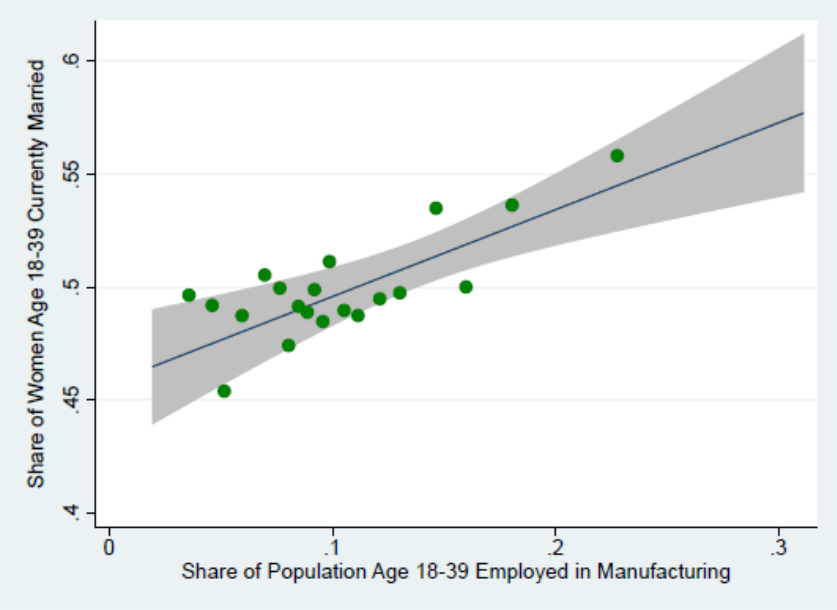
무엇이 결혼을 막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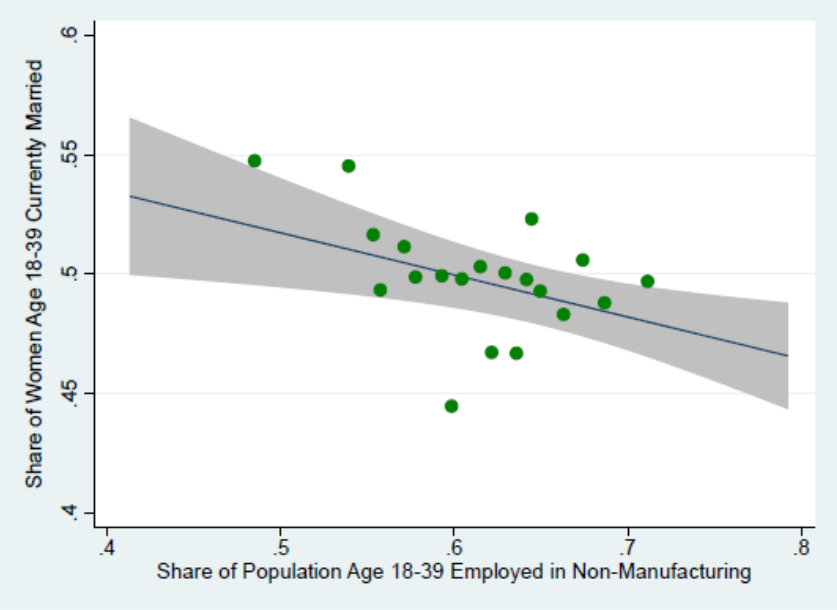
결혼의 장애요인 (1)

- 취업/일자리 질/경제력 문제
  - Edlund and Lee(2013):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과 임금 → 35-44세 남성인구 가운데 독신 비율 높아짐.
  - 일본의 사례(Ogura의 연구): 거주지역(한국의 동, 리에 해당) 청년실업률 → 합계출산율 감소
  - 미국의 사례: 중국과의 무역경쟁격화, 제조업 일자리 감소, 소득변동성(불확실성) → 결혼율 감소
  - 한국 비정규직 → 낮은 결혼확률
- 결혼비용(특히 주거비용)
  - 한국 시군구 자료 분석: 전세가격지수 상승 → 무배우 인구 혼인율 감소
  - 주택가격의 상승 → 출생성비(남아/여아) 감소

미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고용 비중과 유배우 여성 비율 (Autor et al. 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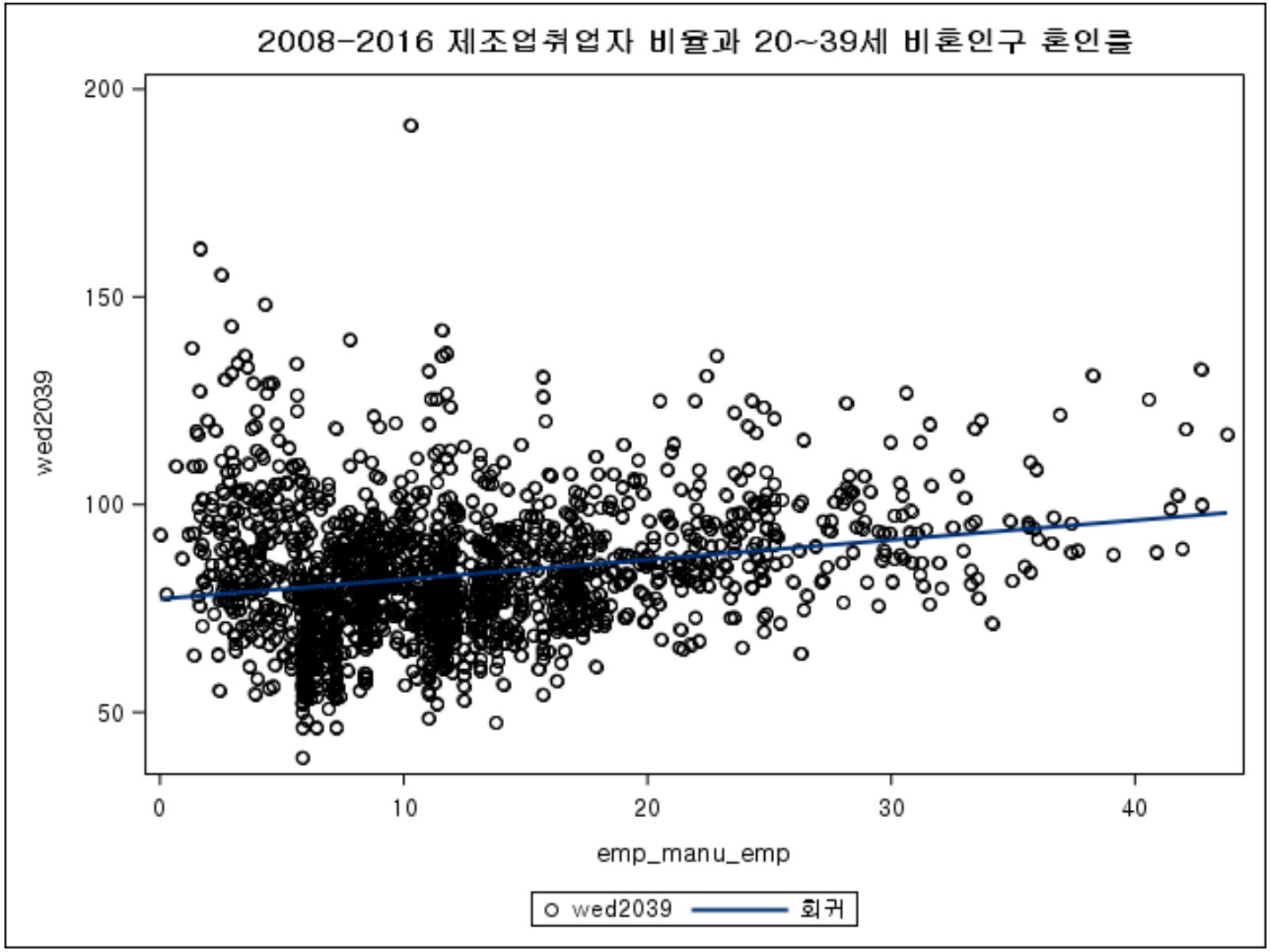
Figure 2: Bin-Scatter of the Commuting Zone Level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 (panel A), the Non-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 (panel b) and the Share of Women that Are Currently Married: Adults Age 18-39 in 2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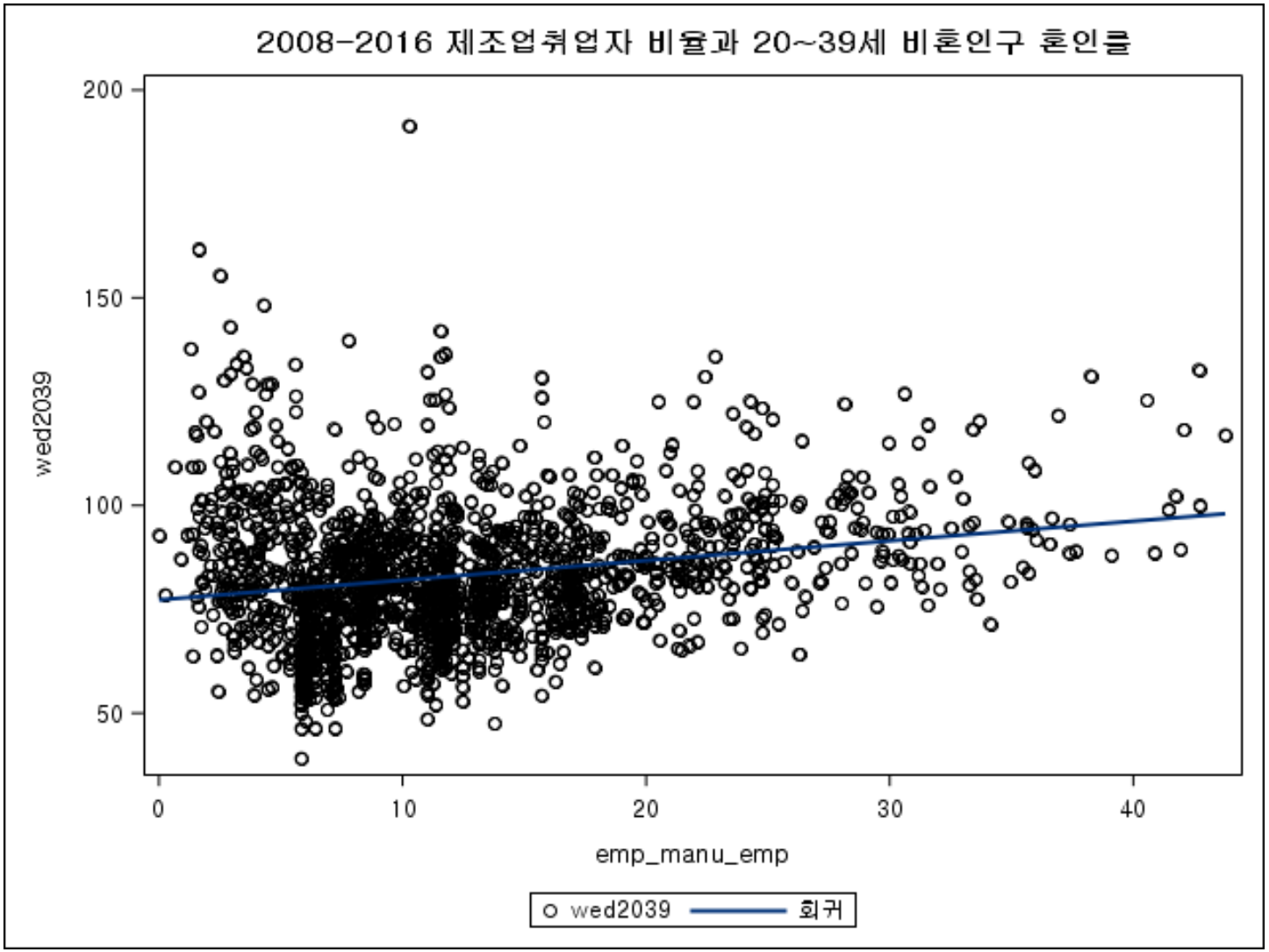


Notes: See Figure 1.

한국의 지역별 20-44세 인구 제조업 취업자 비율과 20~39세 무배우 인구 혼인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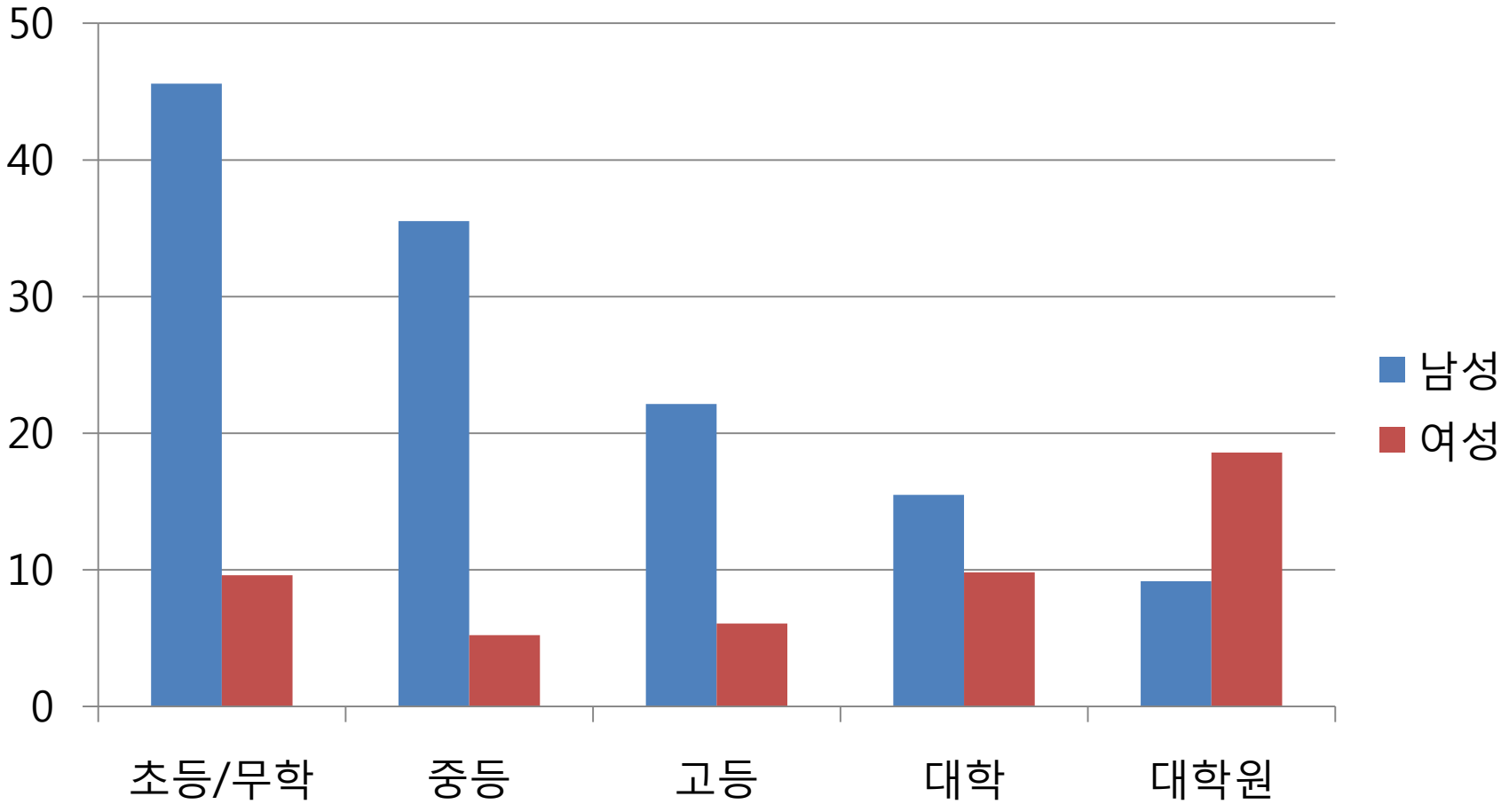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지역별 20-44세 인구 제조업 취업자 비율과 유배우 합계출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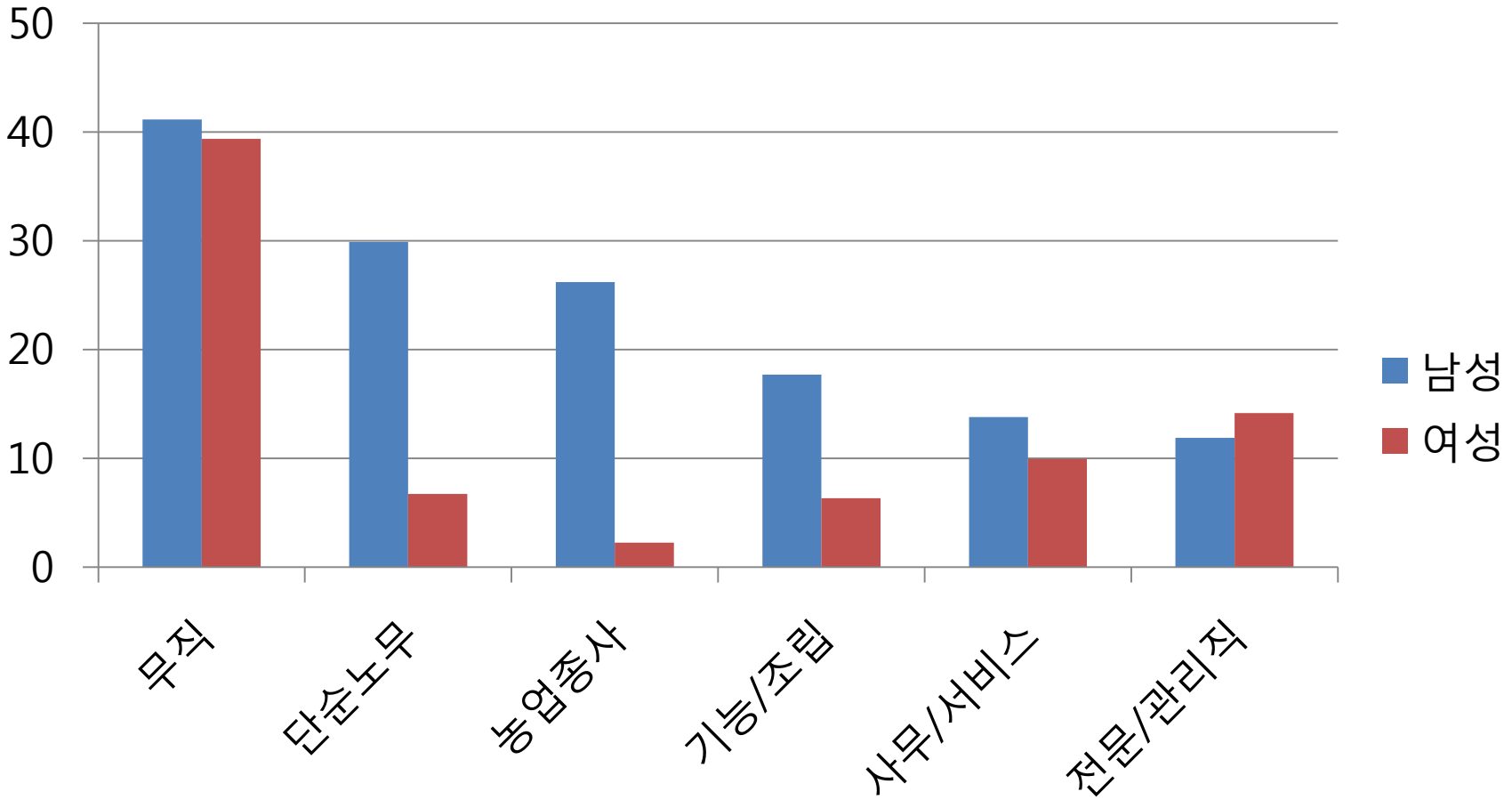
결혼의 장애요인 (2)

- 여성(특히 고학력/전문직 여성)의 결혼율이 낮은 원인은 남성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임.
- 남성과는 달리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배우 비율이 낮음.
- 고소득 전문직 여성의 유배우 비율이 매우 낮음: “Gold Miss”
- 문화적인 요인,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임.
  - “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”고 응답한 여성 비율의 증가 이것을 단순히 비혼에 대한 선호의 증가라고 보는 것은 성급.
  - 경제적 요인/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결혼을 해야할 필요가 감소하면서 결혼생활의 “질 " 에 대한 유보수준(reservation level)이 높아졌을 가능성

35-44세 인구 중 미혼 비율: 학력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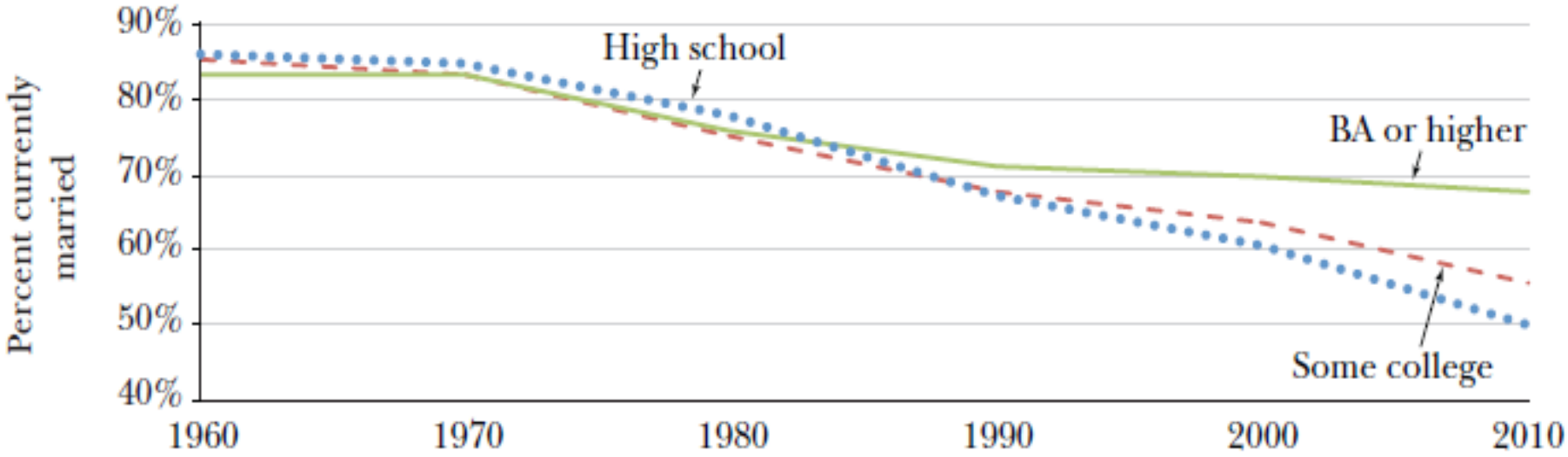
35-44세 인구 중 미혼 비율: 직업별



미국의 학력별 33-44세 인구 유배우비율

Figure 1

Percent of Population Aged 33–44 Currently Married, 1960–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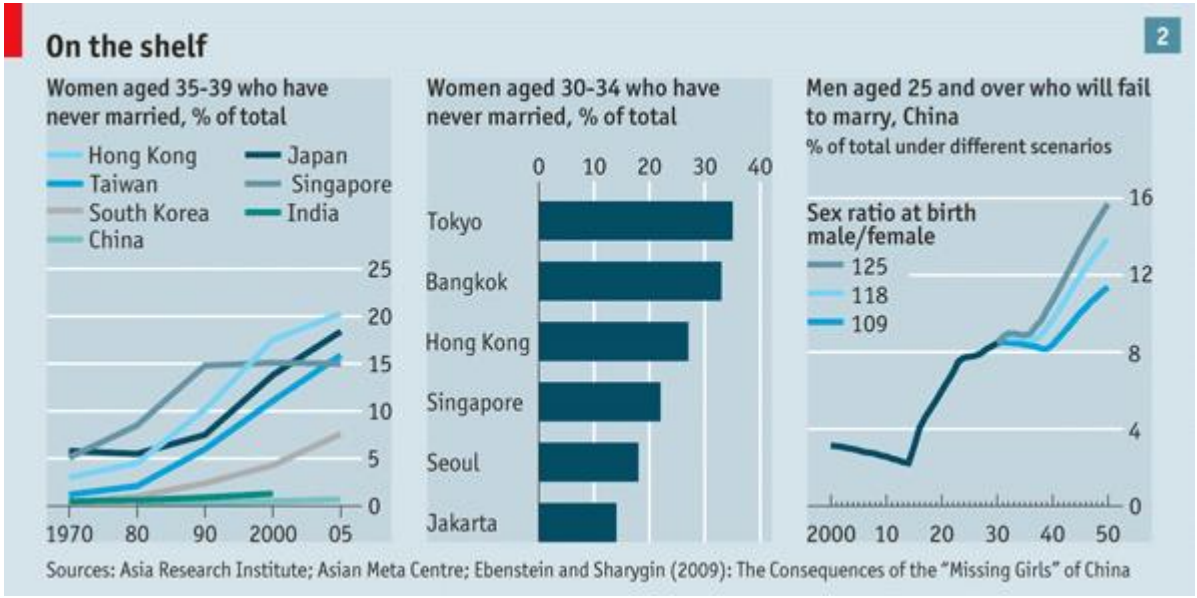


Sources: 1960–2000 US Census; 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.

결혼은 미친 짓이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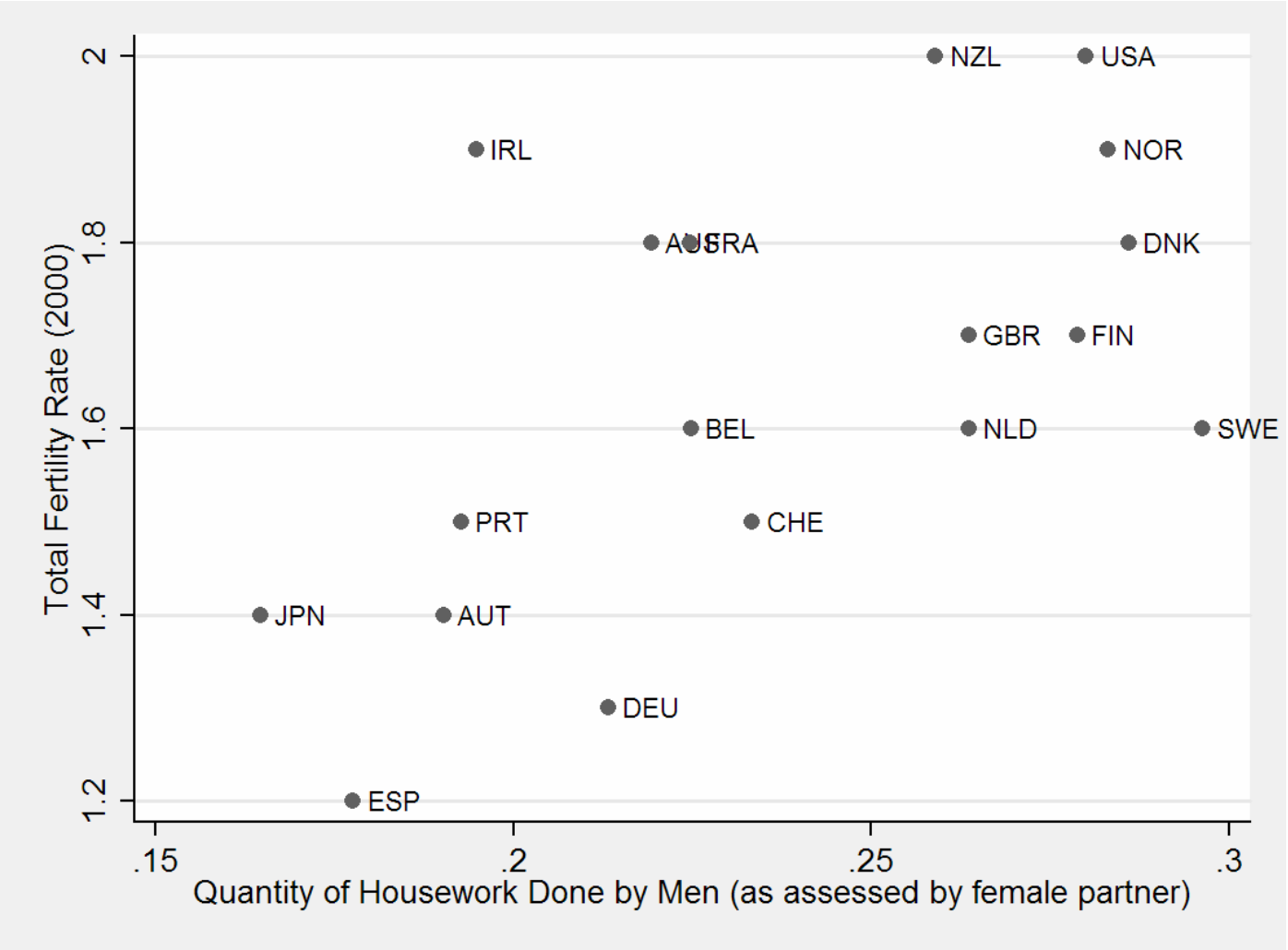
Peter Schrank

Peter Schran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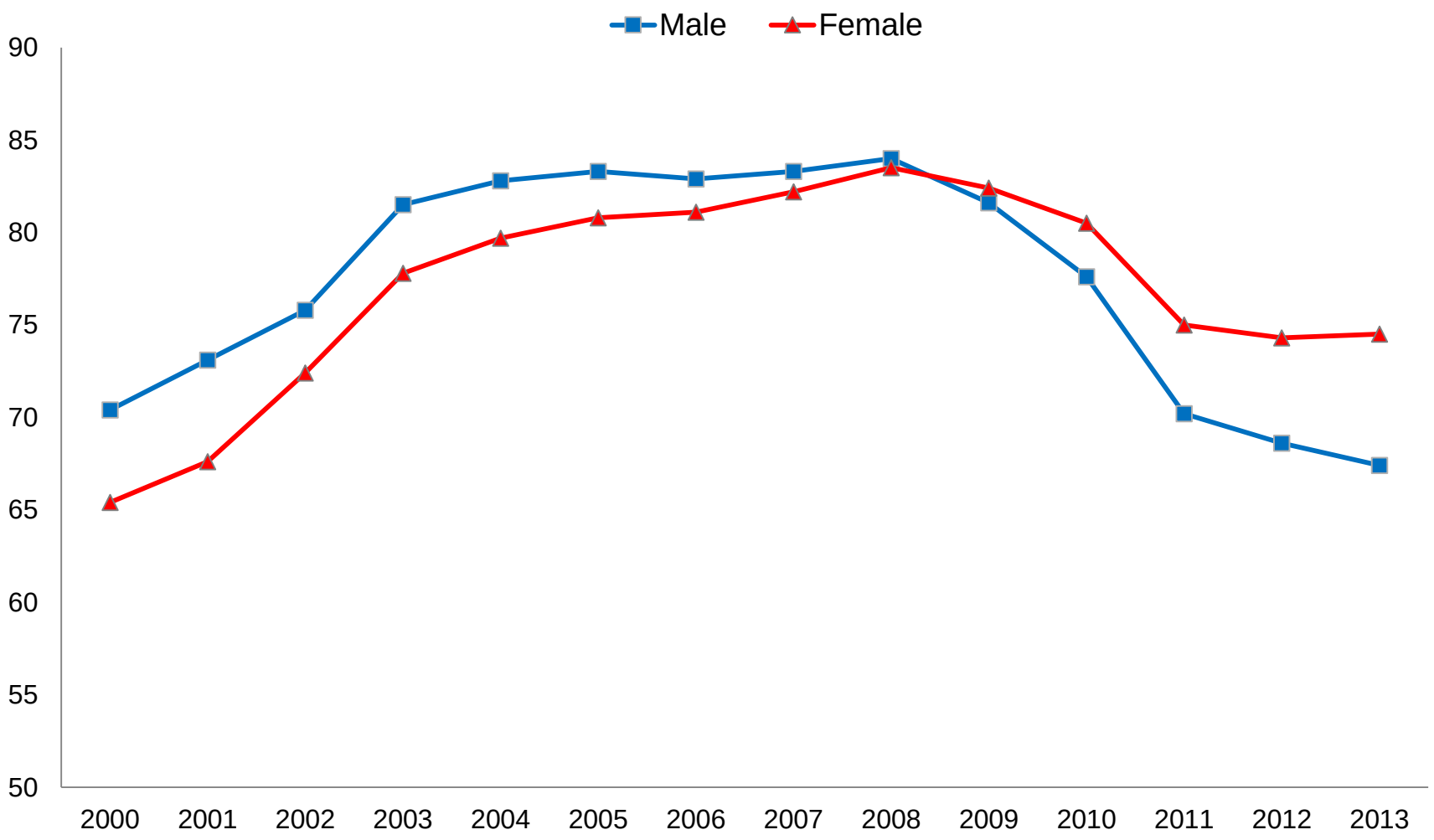

On the shelf
2
Women aged 35-39 who have never married, % of total
Hong Kong
Taiwan
South Korea
China
Japan
Singapore
India
25
20
15
10
5
0
1970
80
90
2000
05
Women aged 30-34 who have never married, % of total
0
10
20
30
40
Tokyo
Bangkok
Hong Kong
Singapore
Seoul
Jakarta
Men aged 25 and over who will fail to marry, China
% of total under different scenarios
Sex ratio at birth male/female
125
118
109
16
12
8
4
0
2000
10
20
30
40
50
Sources: Asia Research Institute; Asian Meta Centre; Ebenstein and Sharygin (2009): The Consequences of the "Missing Girls" of China

남편의 가사 분담 비율과 출산율

Feyrer, Sacerdote, and Stern, "Will the Stork Return to Europe and Japan?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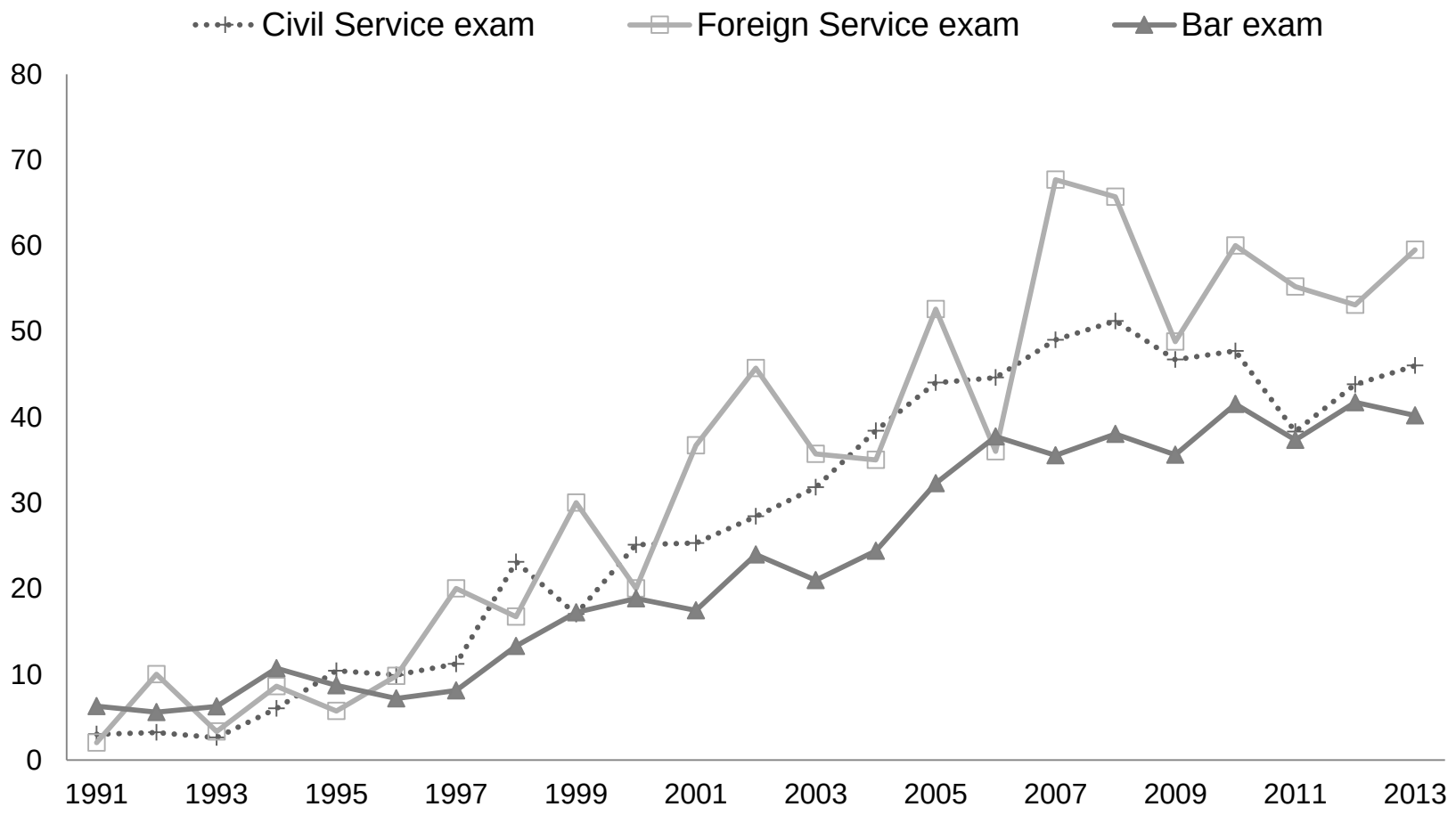


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진학 비율: 남녀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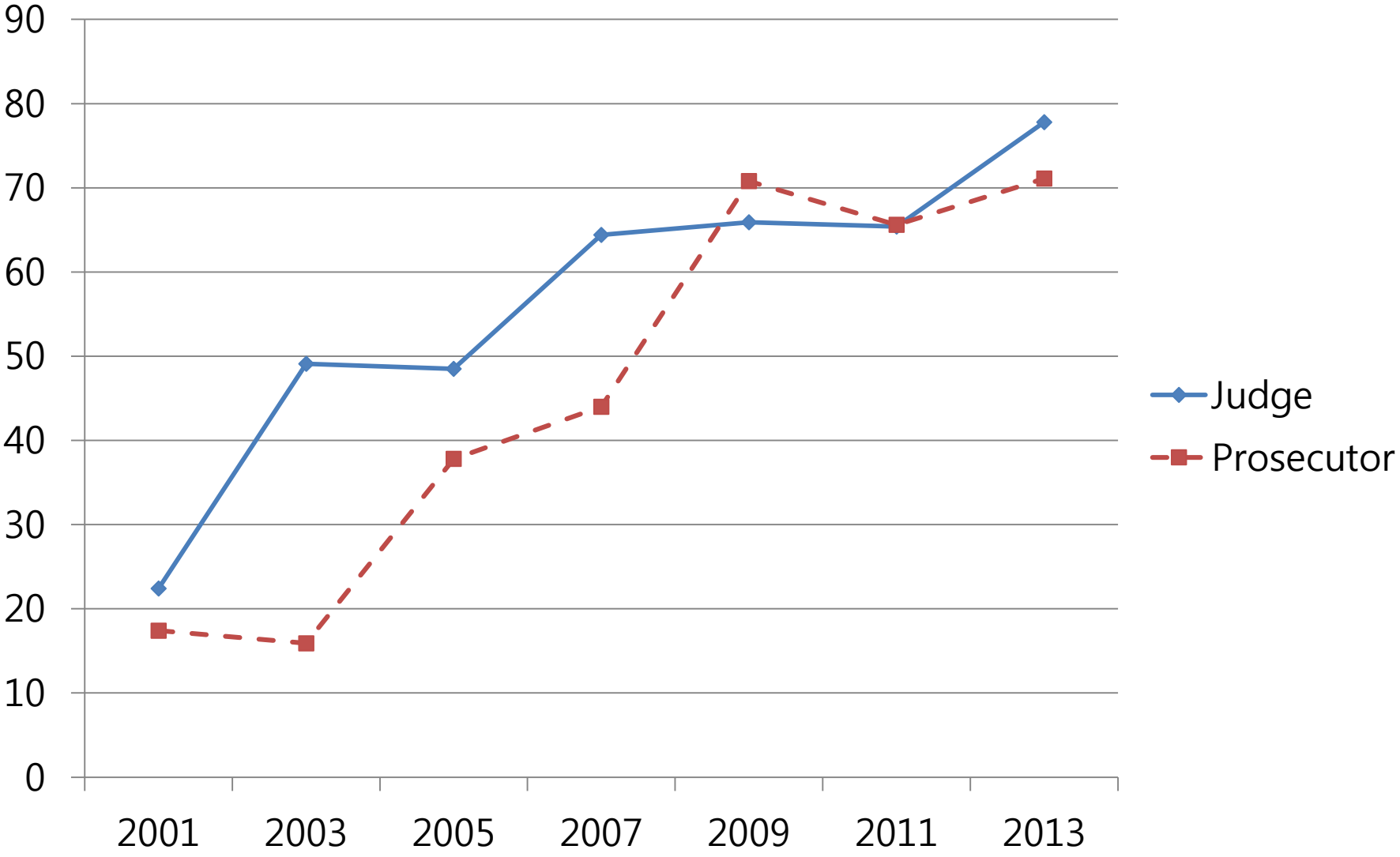
Source: Ministry of Education,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,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

행정고시, 외무고시,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합격자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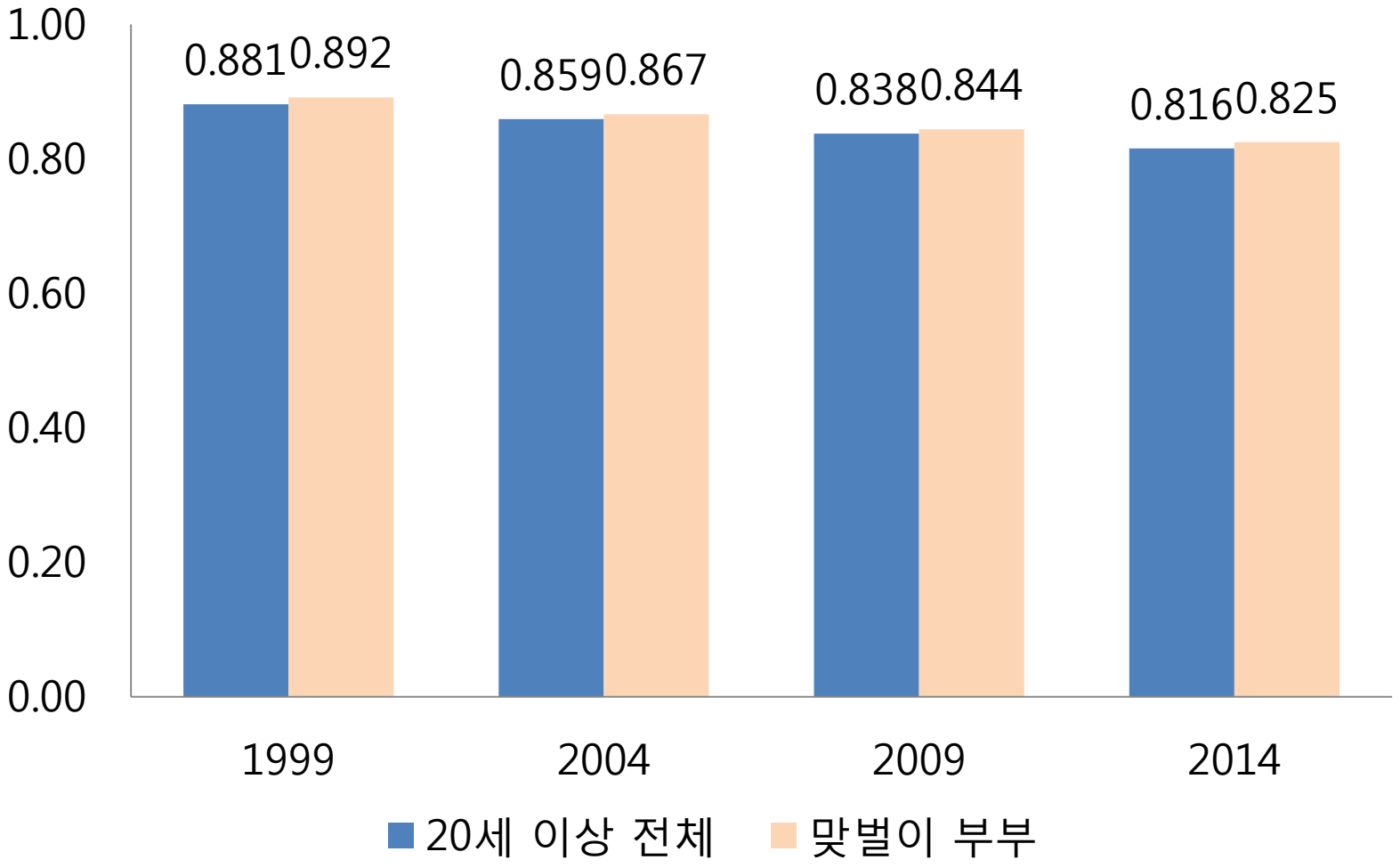
Sources: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, Republic of Korea, *Statistical Yearbook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(MOPAS)*, 2001-2013; Ministry of Justice, Republic of Korea Press Release; Korean Women's Development Institute; National Gender Statistics DB: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; The website of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(https://gsis.kwdi.re.kr).

판사 및 검사로 임용된 사업연수원 졸업생 중 여성 비율



Source: Ministry of Justice, Republic of Korea.

전체 평균 가사노동시간 대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비율



출처: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, 2004, 2009, 2014

Hwang, Lee, and Lee (2019)

chosun.com 사회

사회 일반

"TK 출신 男과 결혼한 여성은 하루 65분 집안일 더 한다"...서울대 교수 연구결과

주형식 기자

입력 : 2015.10.30 08:44 | 수정 : 2015.10.30 10: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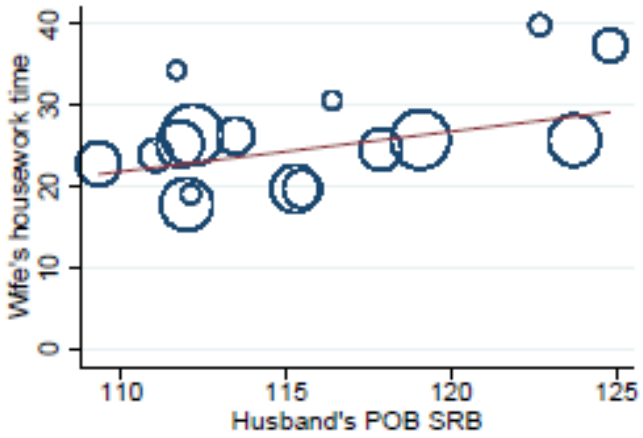
조선D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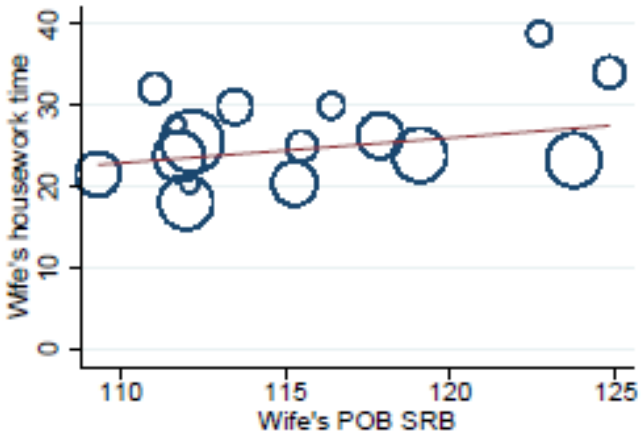
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지역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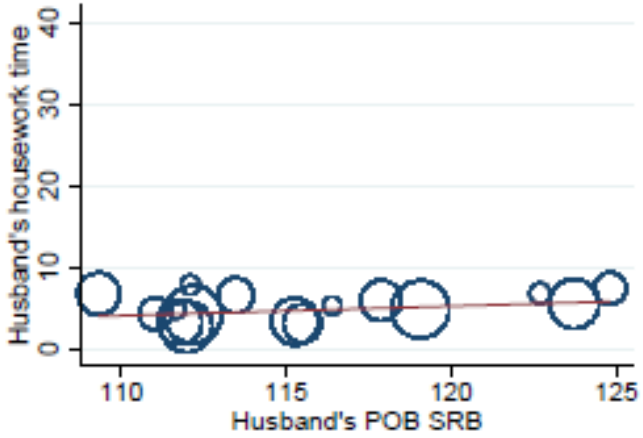
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대에서 개최한 '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'에서 '부모의 남아선호, 성 역할 태도와 가사분담' 논문을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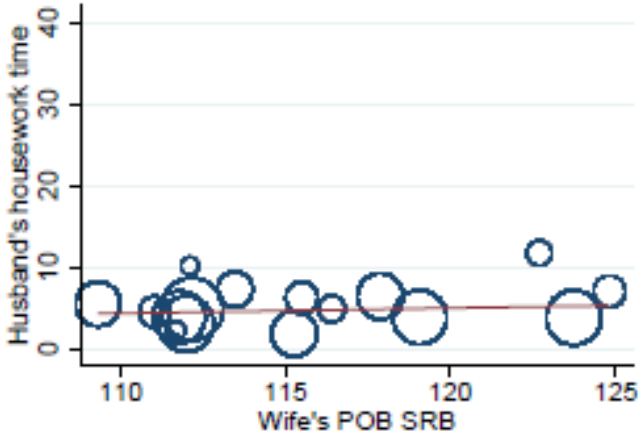
논문에 따르면 남아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지역에서 태어난 남성은 남아선호가 덜 강한 지역의 남성에 비해 '전통적인 성 역할'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가사노동 배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출생지 출생성비와 주 가사노동시간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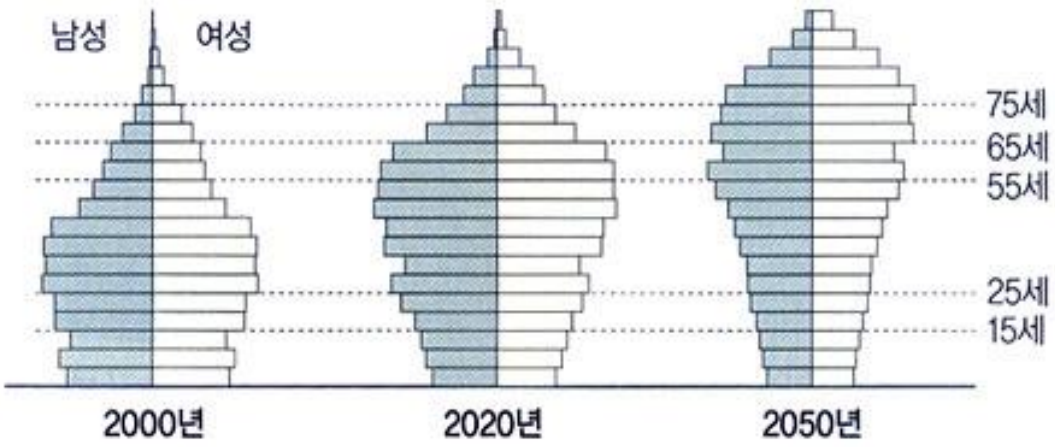


부모의 문화적 규범이 미치는 효과

- 선호의 형성에 대한 영향
  - 어머니가 해 주었던 것을 아내에게 기대
  - 많은 가사노동량을 필요로 하는 방식(home production technology) 선호. 예컨대 가사노동 아웃소싱 덜함.
- 가사노동 생산성에 대한 영향
  - 어려서 집안 일을 해보지 않은 남성들은 가사노동 생산성이 낮음 → 배우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됨.
- 문화적 규범의 세대 간 이전
  - 무의식적인 선호나 습관을 매개로 할 가능성
  - 남성의 경우 부친보다 모친의 영향이 클 가능성

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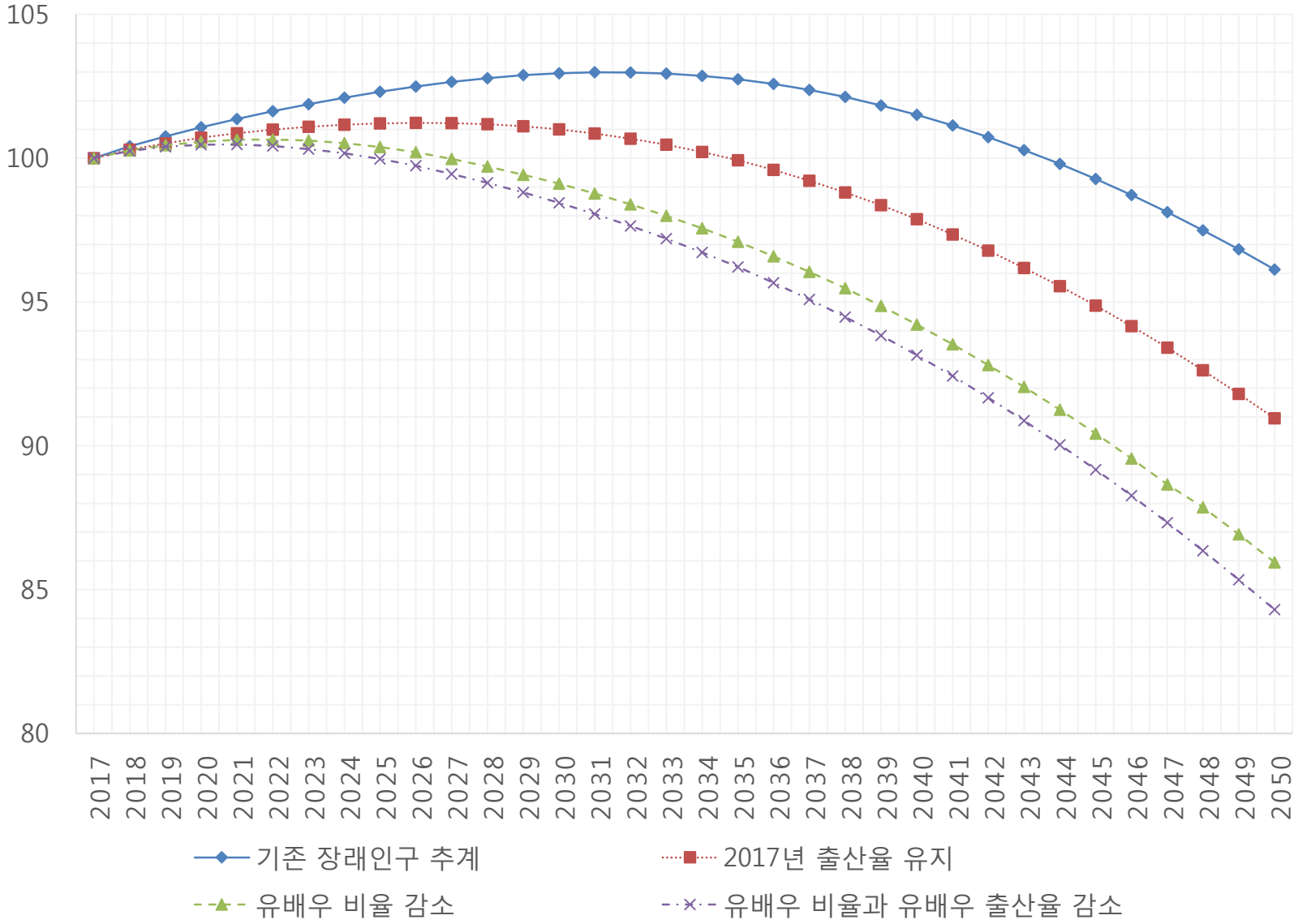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추이



각 시나리오에 따른 총인구 전망

(2017년 대비 퍼센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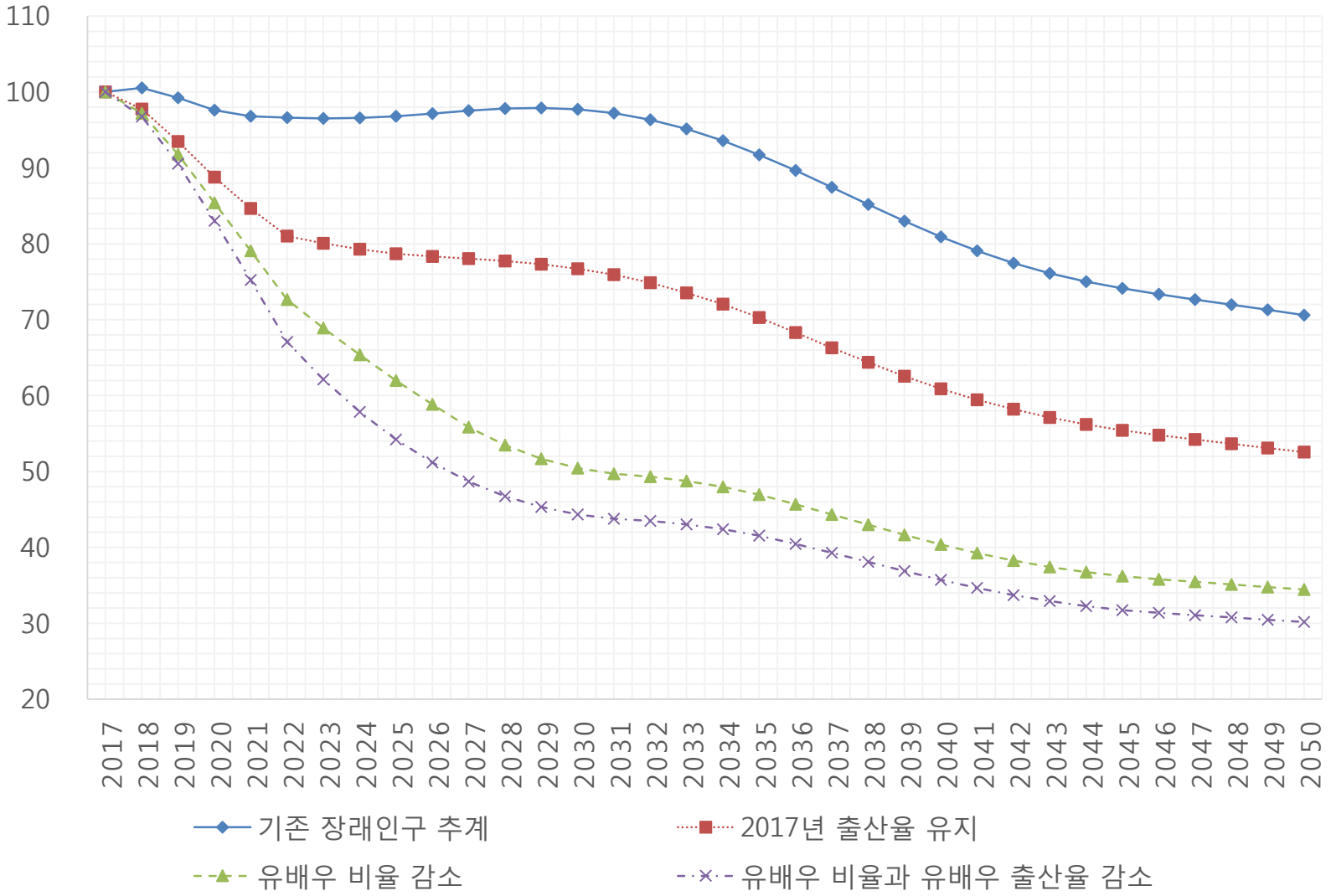
2050년 84% ~ 96%



각 시나리오에 따른 0~4세 인구 전망

(2017년 대비 퍼센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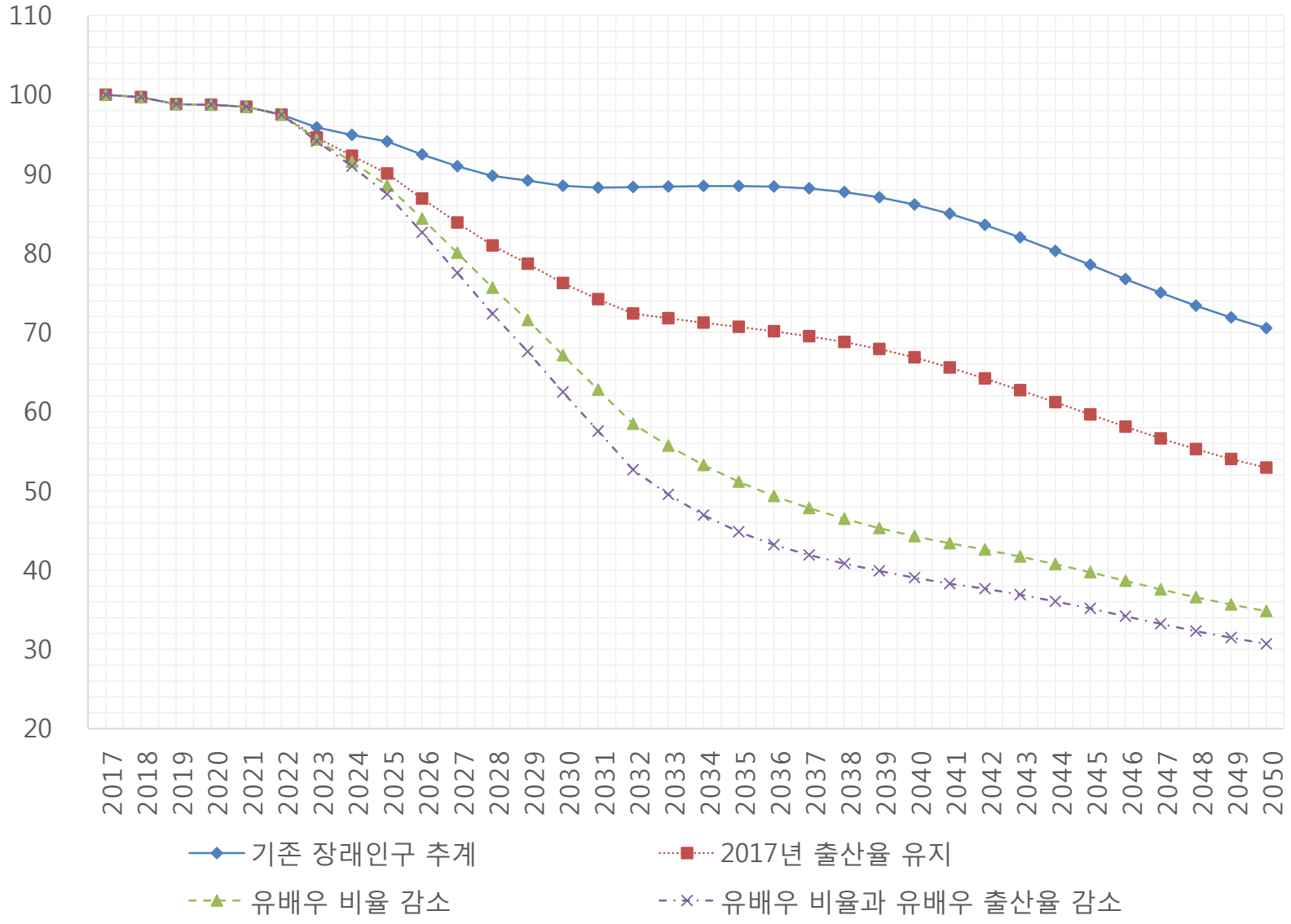
2050년 30% ~ 71%



각 시나리오에 따른 5세-14세 인구

(2017년 대비 퍼센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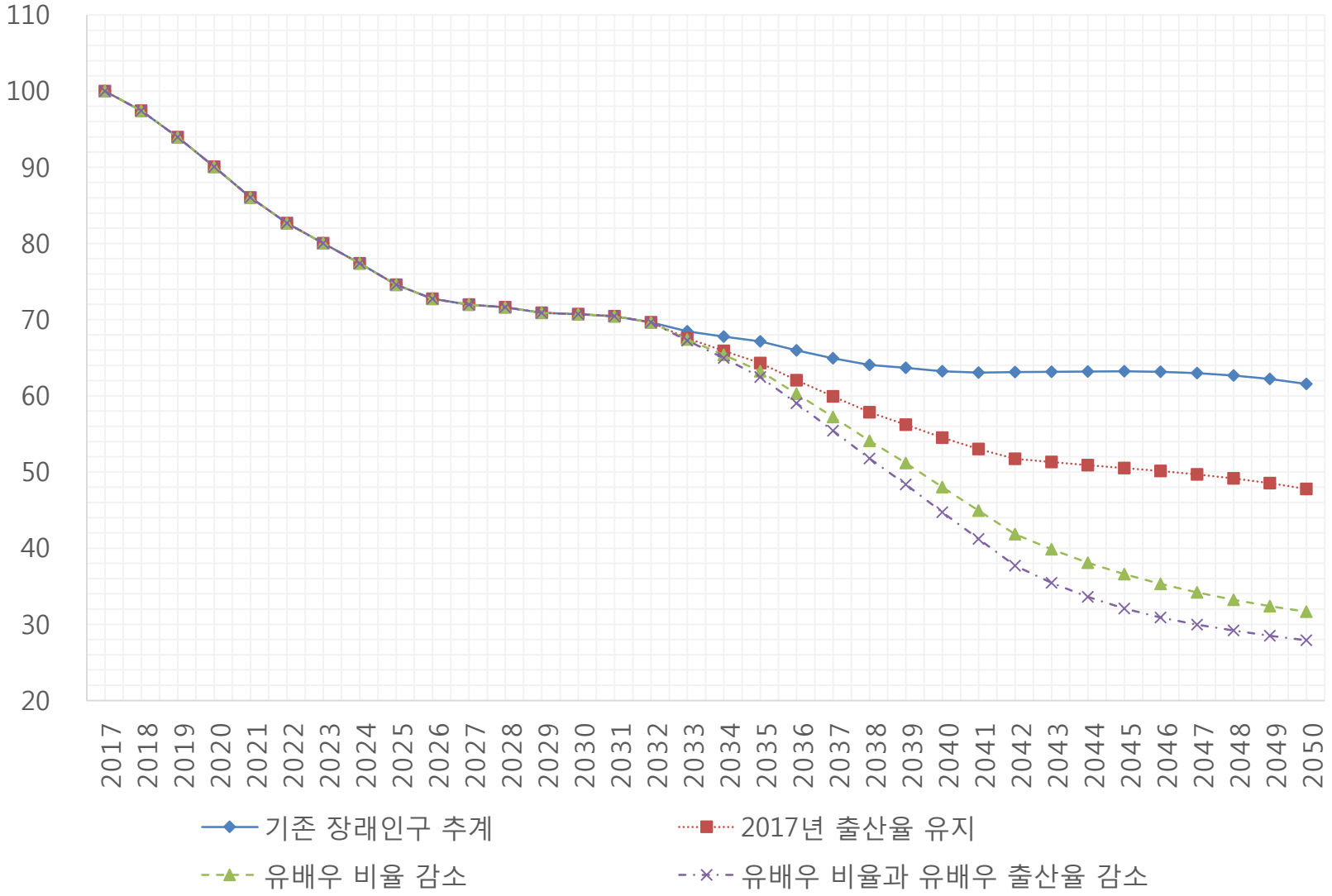
2050년 31% ~ 71%



각 시나리오에 따른 15세-24세 인구

(2017년 대비 퍼센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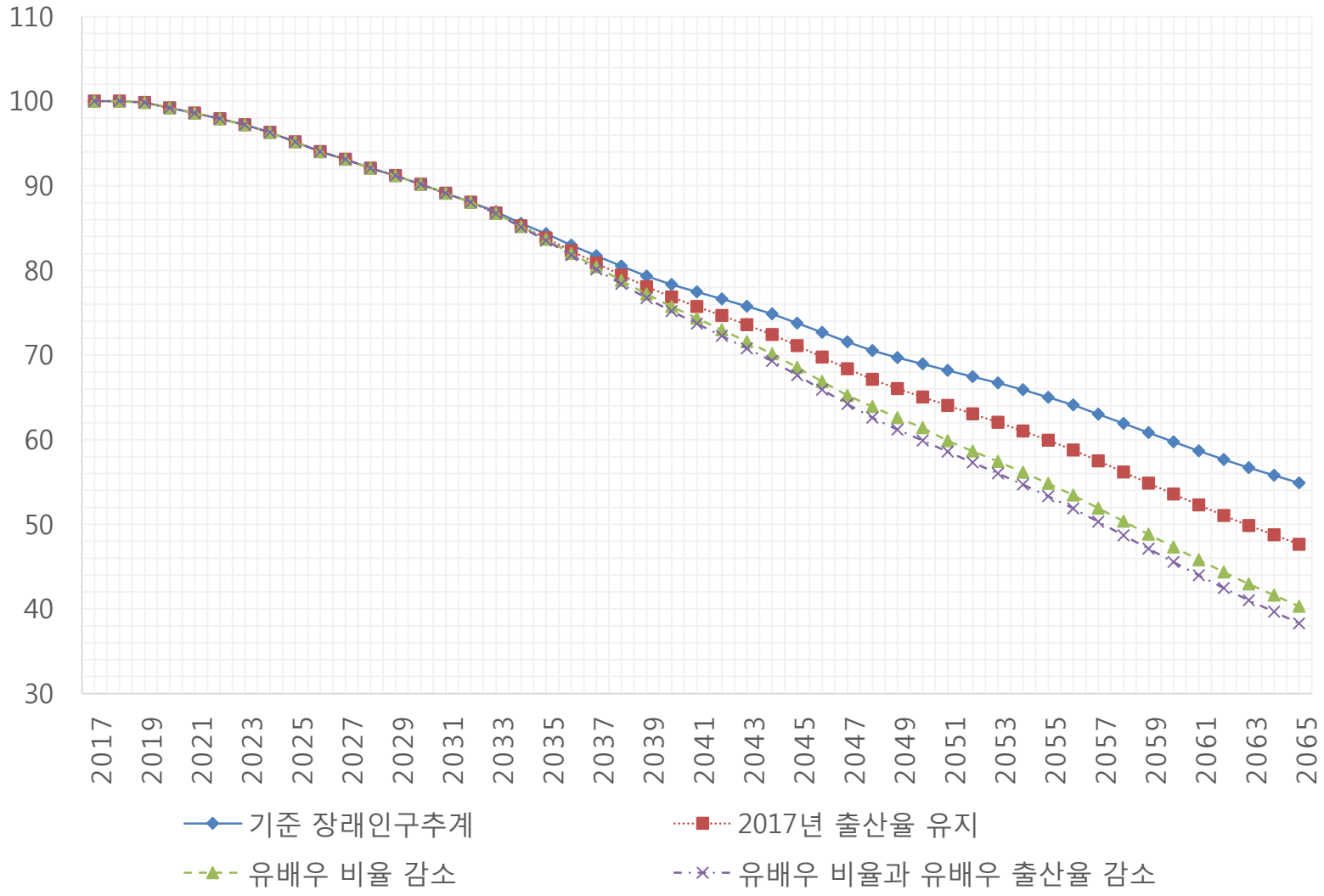
2050년 28% ~ 62%



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(15-64세 인구)

(2017년 대비 퍼센트)

2065년 38.3% ~ 54.9%



장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정

- 2017년의 성별 ·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인구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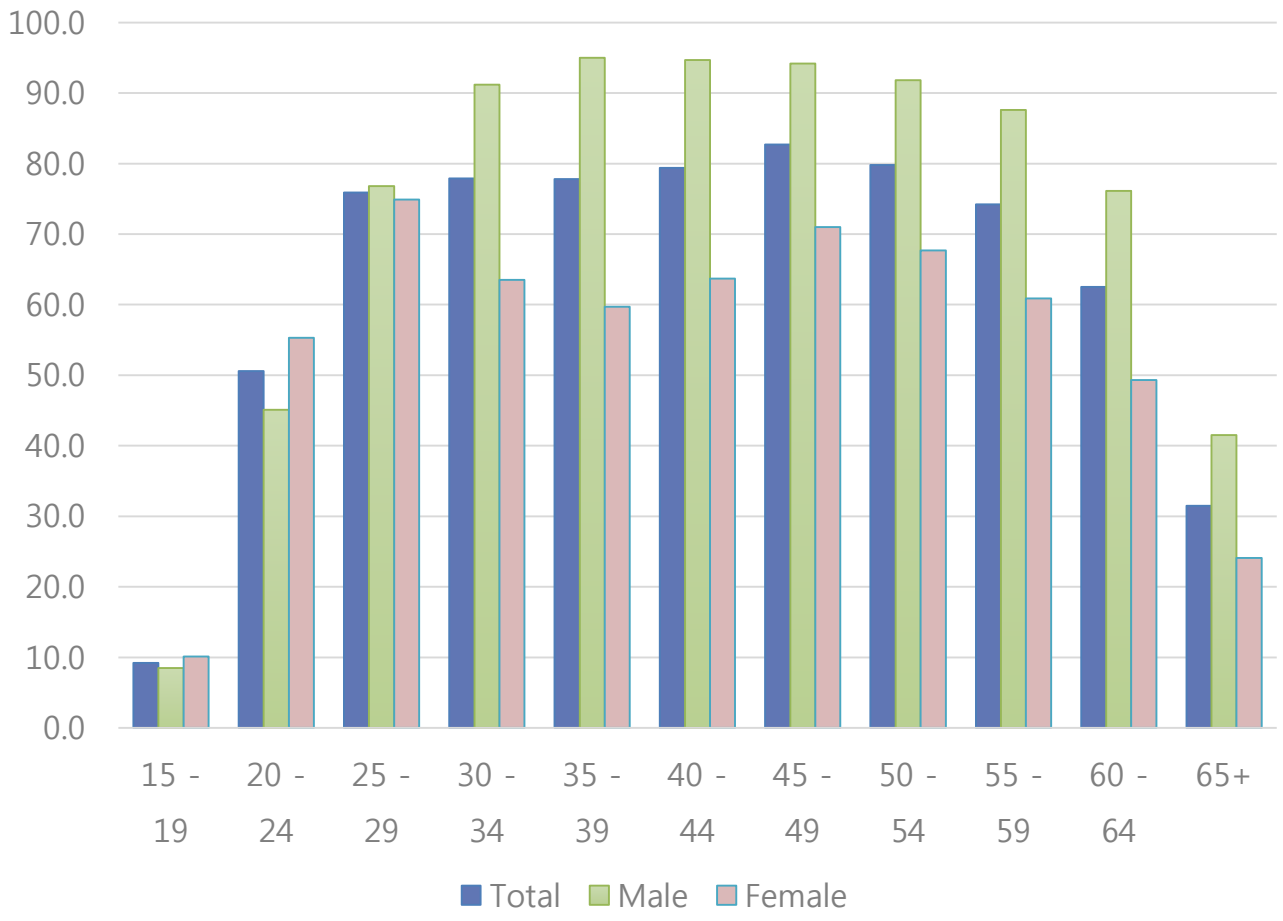
$$LF_t = \sum_a \sum_s \overline{E^{a,s}} P_t^{a,s}$$

a: 연령; s: 성별, t: 연도

E: 2017년 성별 ·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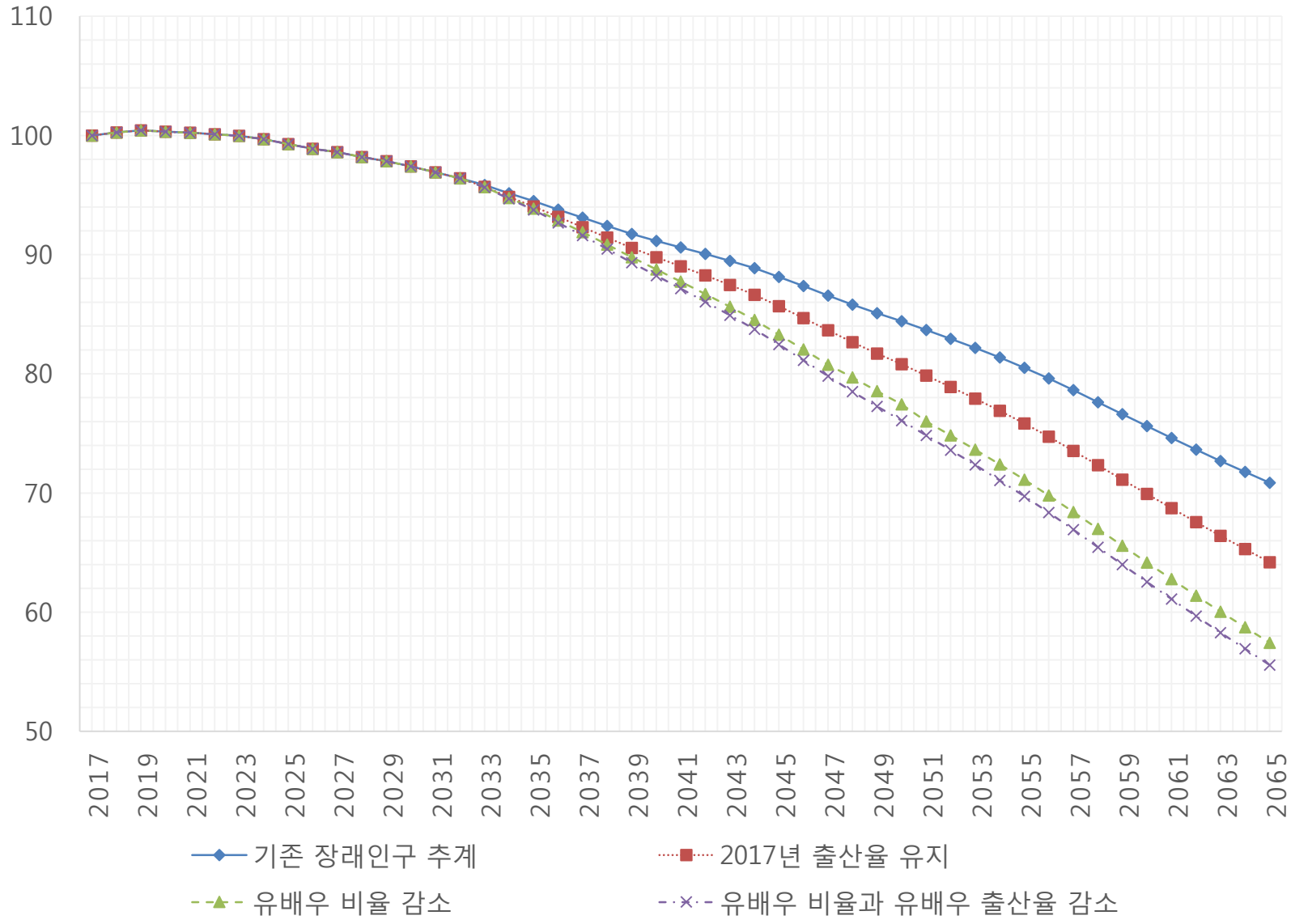
P: 각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성별·연령별 인구

2017년 성별,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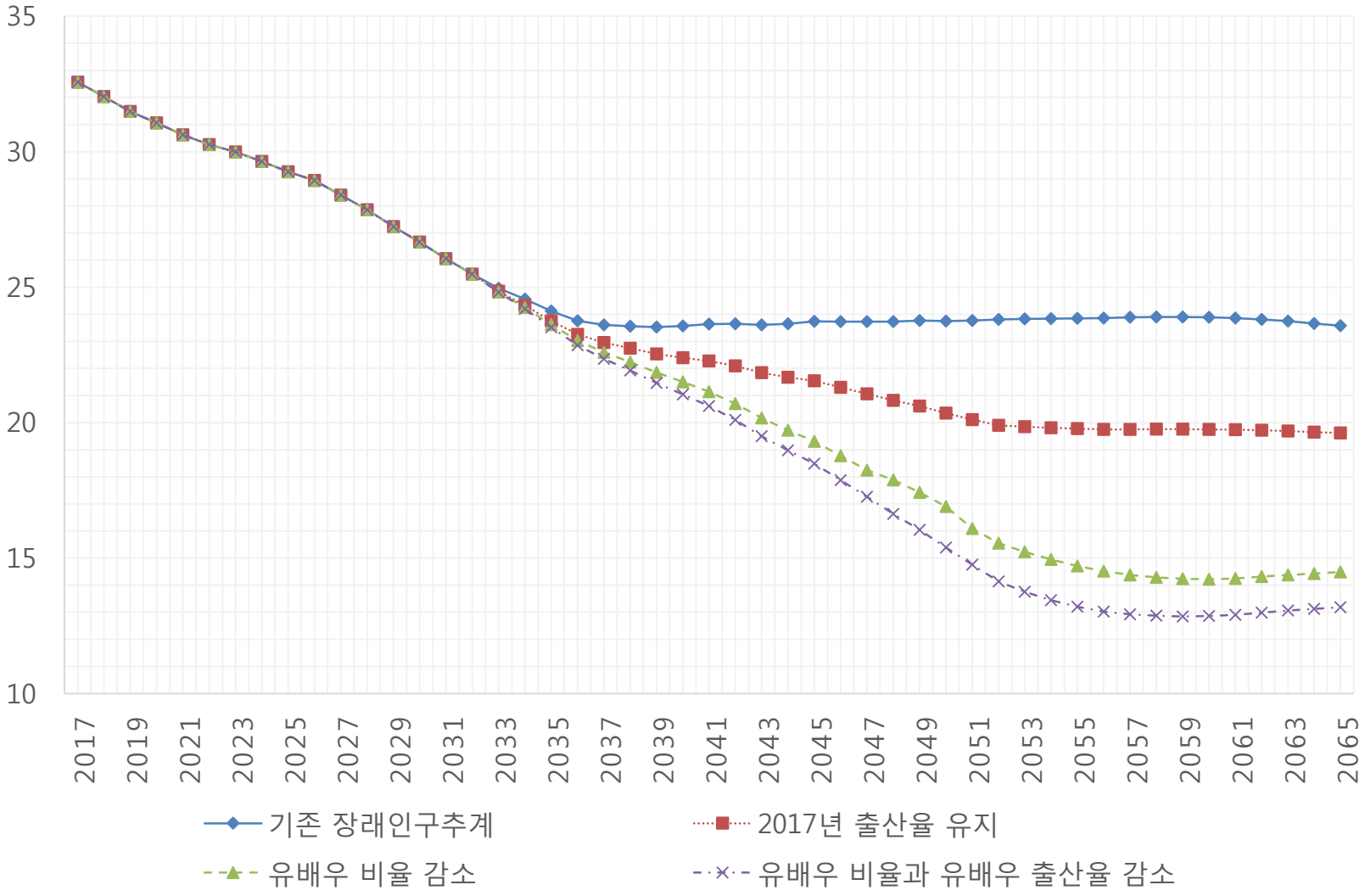
전체 경제활동인구 (2017년 대비 퍼센트)

2065년 55.6%~70.9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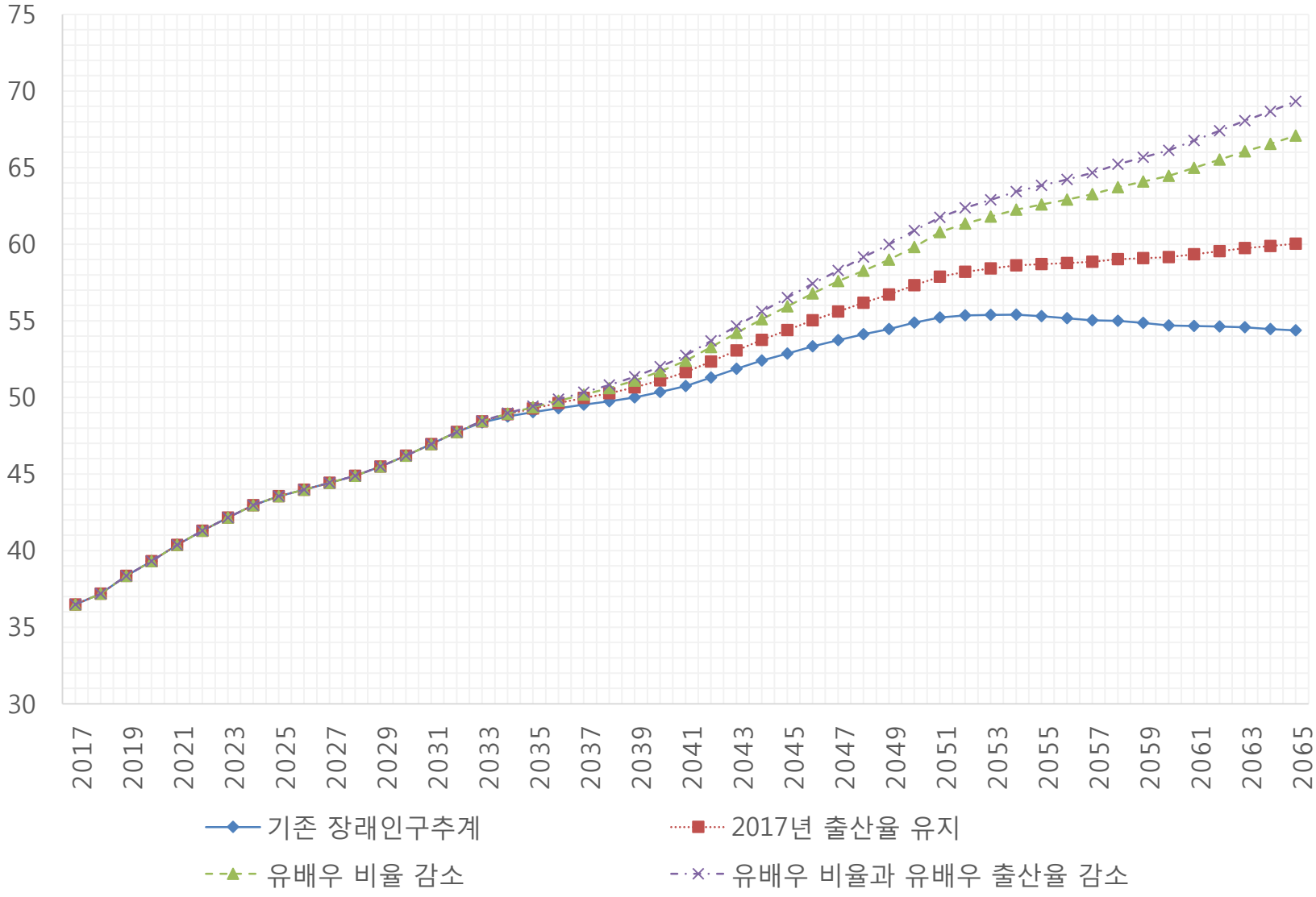
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비율

2065년 12.3%~23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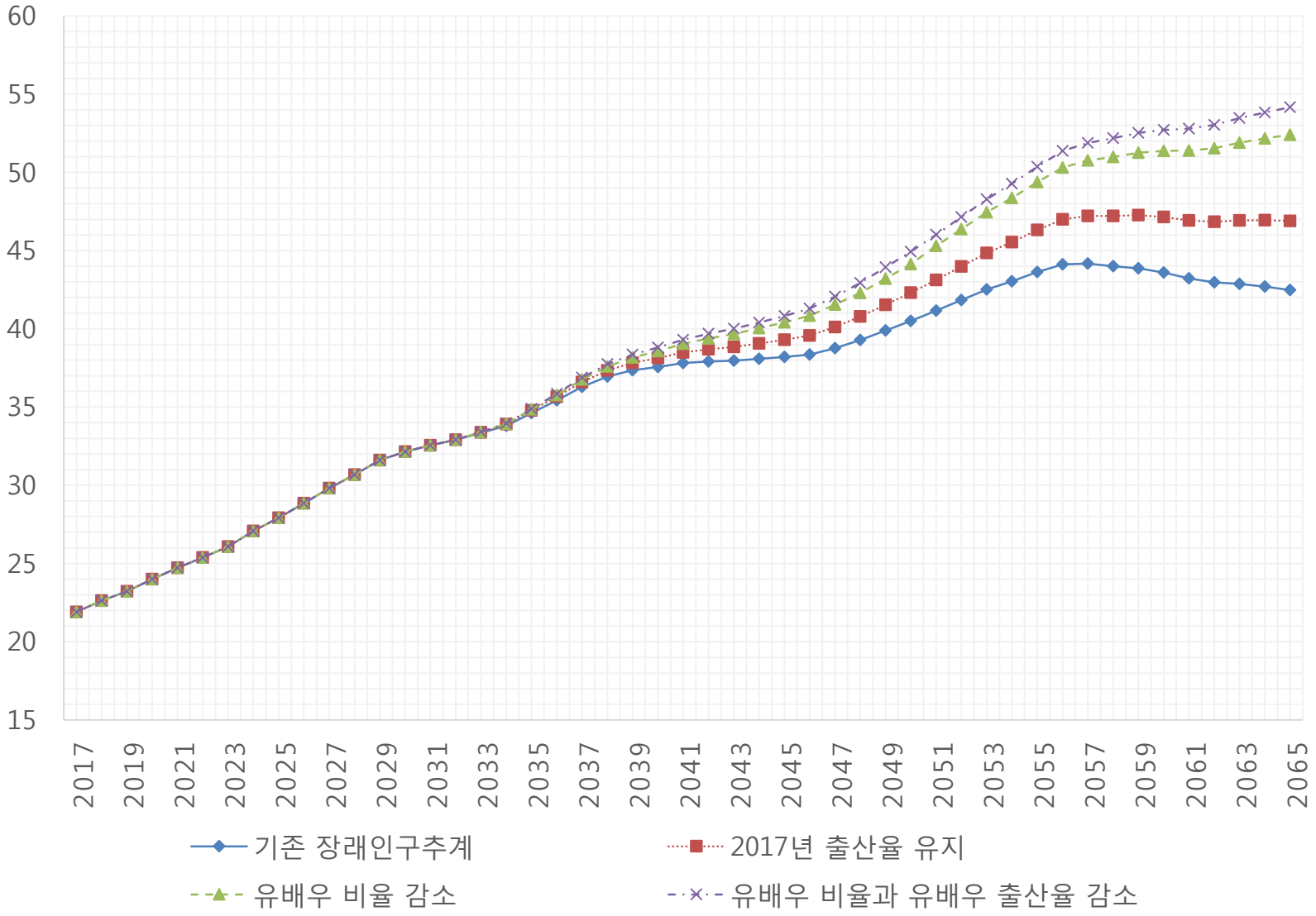
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

2065년 54.4%~69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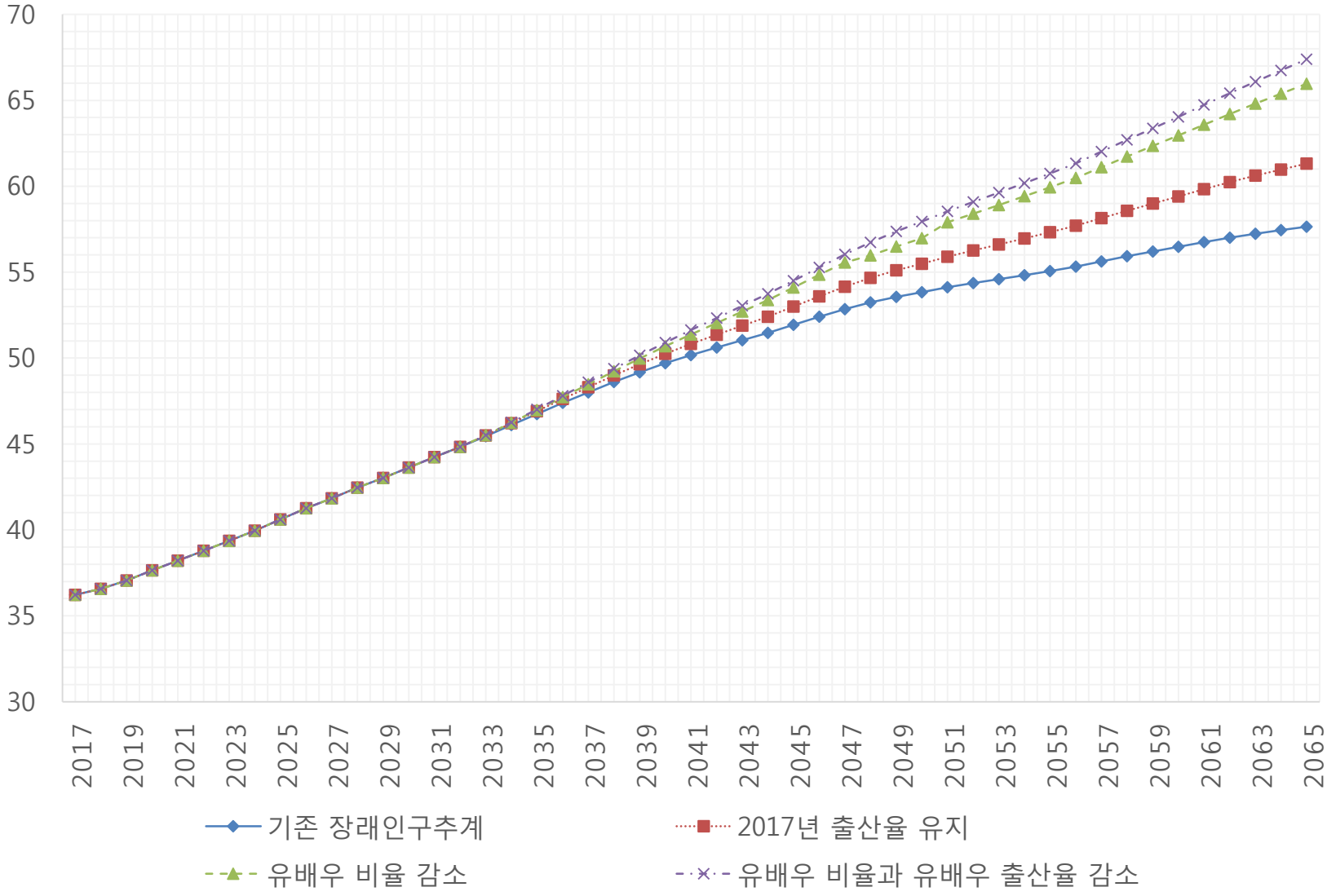
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

2065년 42.5% ~ 54.2%



경제활동인구 평균 연령

2065년 57.6세~67.4세



전체 노동인력의 변화 (1)

- 향후 15년(혹은 20년) 동안은 총인구 혹은 총 노동인력의 가파른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→ 단기적으로 총량적인 노동부족은 없을 것.
- 노동수요측면(기술 및 산업구조)의 변화와 성별·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15~20년 내 총량적인 노동부족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.
- 당분간은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.
- 가까운 장래에서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청년노동비율의 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.
- 단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는 부문 간, 유형별 노동자 간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는 것이 될 것.
- 특히 약 10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신규인력 감소문제가 심각해 질 것.
  - ➢ 인구 특성별 노동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

전체 노동인력의 변화 (2)

- 장기적으로 인구(특히 젊은 인구)의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실함.
- 그러나 출생아 수 변화(감소의 속도)에 따라 인구변화의 양상과 영향은 크게 달라짐.
- 15년~20년 후 인구 및 노동인력 변화는 앞으로의 출산율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 → "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" .
  - 2065년의 핵심적인 생산가능인구: 현재의 38%~55%
  - 2065년의 경제활동인구: 현재의 56%~71% (약 430만 차이)
  - 2065년의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비율: 13.2%~23.6
-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구나 노동인력의 총량적인 감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음.
  - 노동인력이 50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
- 더 중요한 문제는 출생 코호트(연령별 인구) 간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것 → 재정, 연금, 의료 등의 문제
- 인구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없어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저출산·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응/대응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.

산업별 인구변화의 영향 추정: 방법 (1)

- 2012~2017년 데이터 이용하여 노동시장동학과 관련된 파라미터들 추정(인구 이외에 현재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)

➢ 산업잔존확률(industry survival rate): 특정시기(t), 특정산업(j)에 고용된 특정연령(a) 고용인력이 다음 시기(t+1)에도 동일한 산업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

$$S_a^{j,t} = (1 - d_a^{j,t}) \times (1 + m_a^{j,t}) = N_{a+1}^{j,t+1} / N_a^{j,t}$$

- d: 사망률 + 순 해외이주 비율
- m: 특정 산업으로의 순 진입률
- N: 고용인력의 수

➢ 노동시장 진입인력이 특정 산업(j)로 진입하는 비율 (θ^j)

➢ 노동시장 진입연령에 있는 인구의 고용률 (E_0)

산업별 인구변화의 영향: 방법 (2)

- 이상의 파라미터(θ_0, E_0, S_a)와 현재의 산업·연령별 고용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이용하여 장래의 산업·연령별 고용인구 추정
  - 각 산업에 진입하는 노동시장진입연령 인구:

$$N_0^{j,t} = \theta_0^j E_0 P_0^t$$

  - t+1기에 산업 j에 고용된 연령 a+1 취업인구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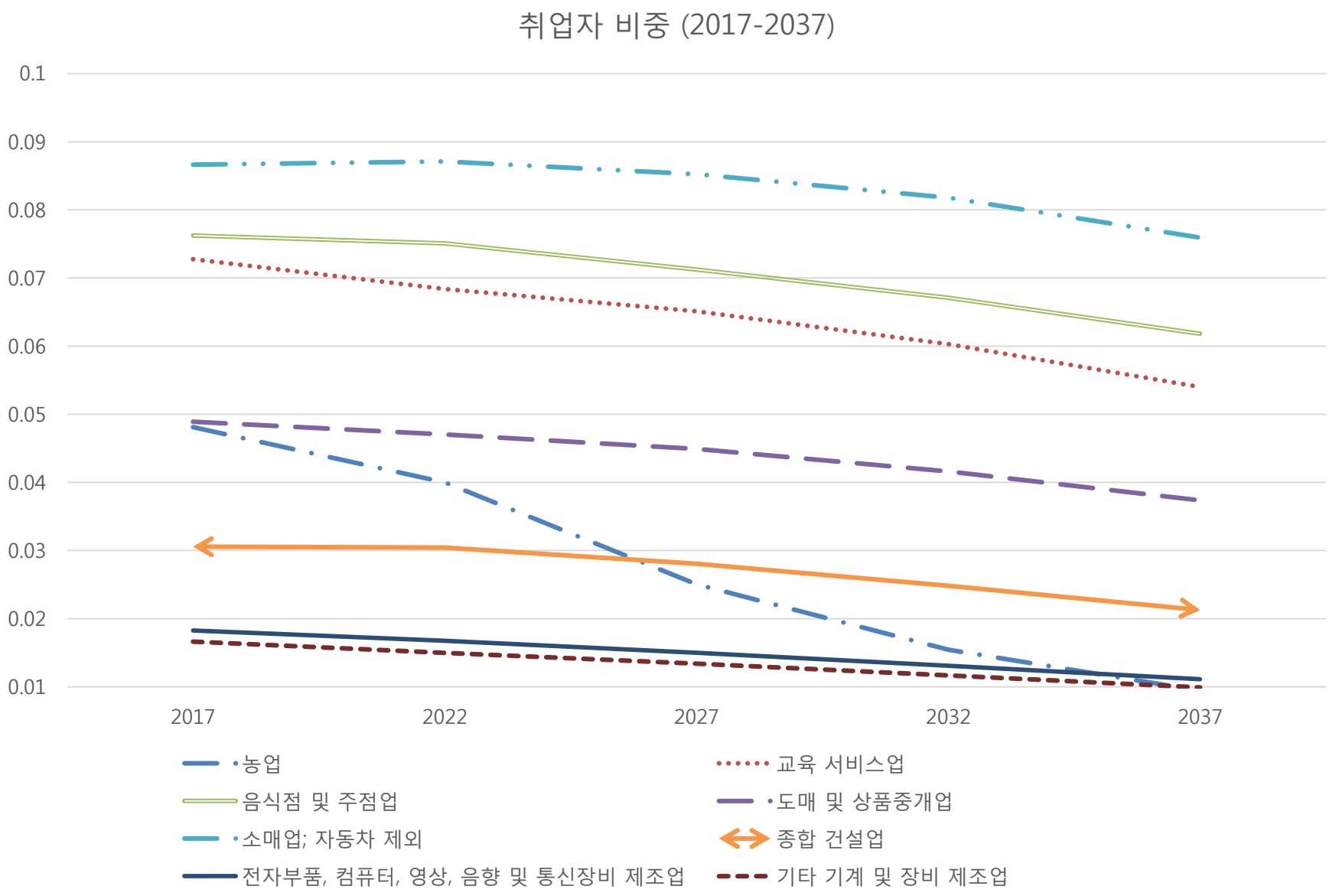
$$N_{a+1}^{j,t+1} = S_a^j N_a^{j,t}$$

$$N_k^{j,t+k} = \prod_{a=0}^{k-1} S_a^j \theta_0^j E_0 P_0^t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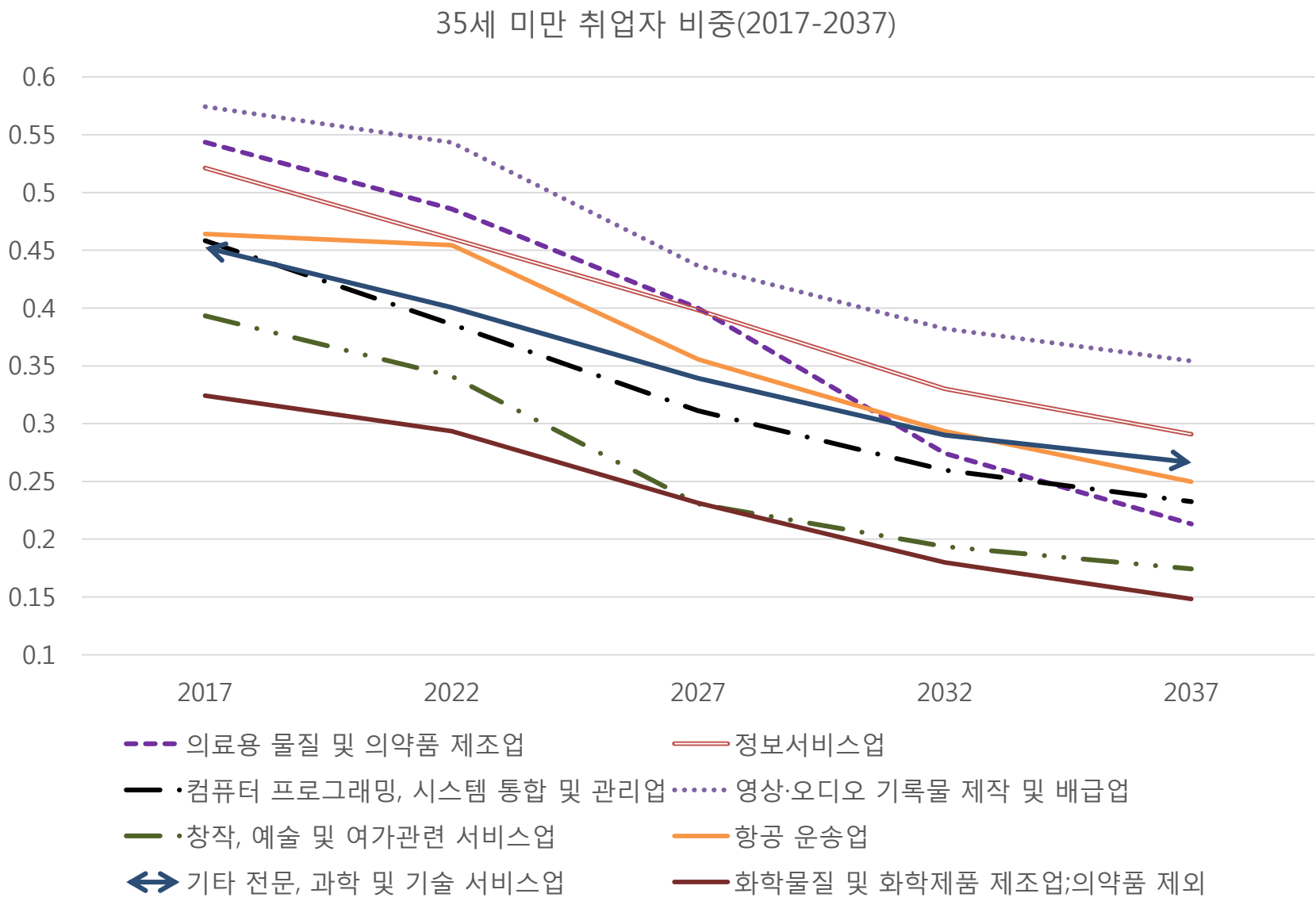
  - 실제의 추정에서는 5년 단위 연령구간 이용.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0~24세로 가정:

$$N_{25-29}^{j,t+5} = S_{20-24}^j \theta_{20-24}^j E_{20-24} P_{20-24}^t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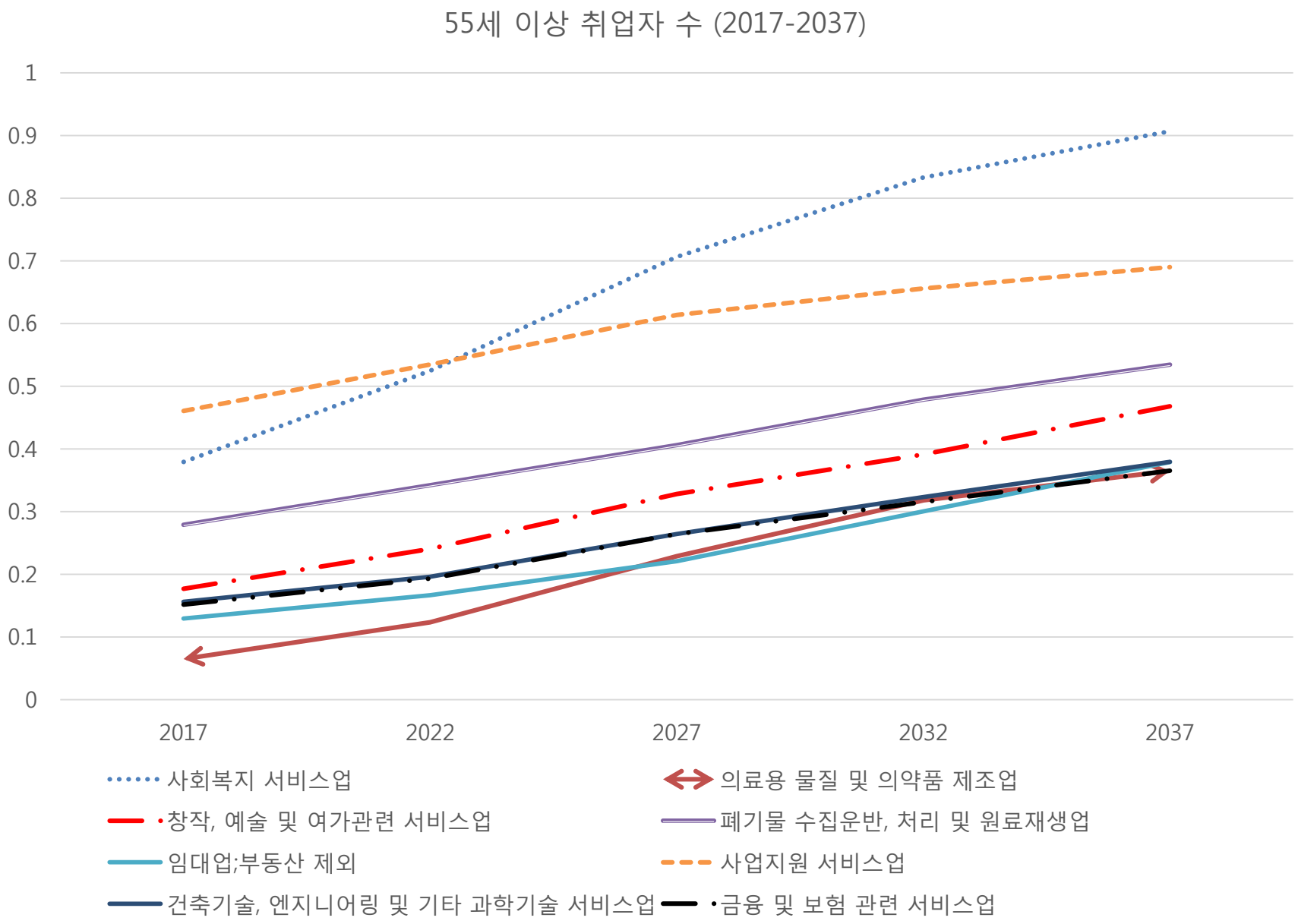
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산업들



35세 미만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산업들



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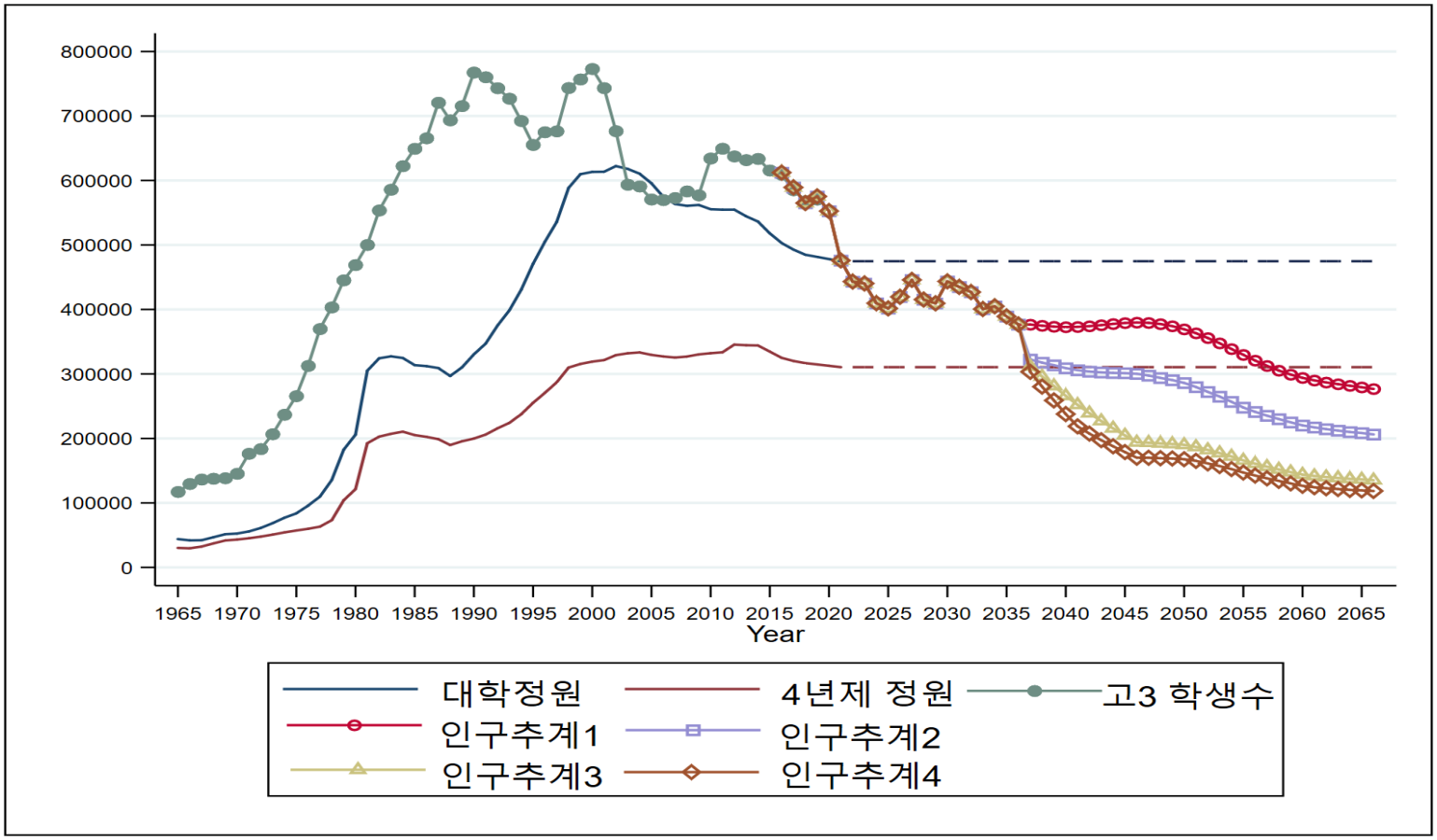
인구변화가 각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

-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각 산업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  - 일부 산업들은 가까운 장래에서 심각한 노동인력의 부족, 청년고용인력의 급감, 빠른 고용인력의 고령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.
- 각 산업별 장래 노동시장변화는 다음의 요인들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
  - 청년인력의 취업률
  -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 → 어떤 부문으로 주로 진입하는가? 산업의 필요와 잘 부합되는가?
  - 산업 간 노동이동의 패턴 → 확대되는 부문으로 탄력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?
  - 중·장년 및 고령노동 고용여건 → 고용안정성 및 재취업 진입 가능성 여부 등

인구변화로 인해 초래될 다른 불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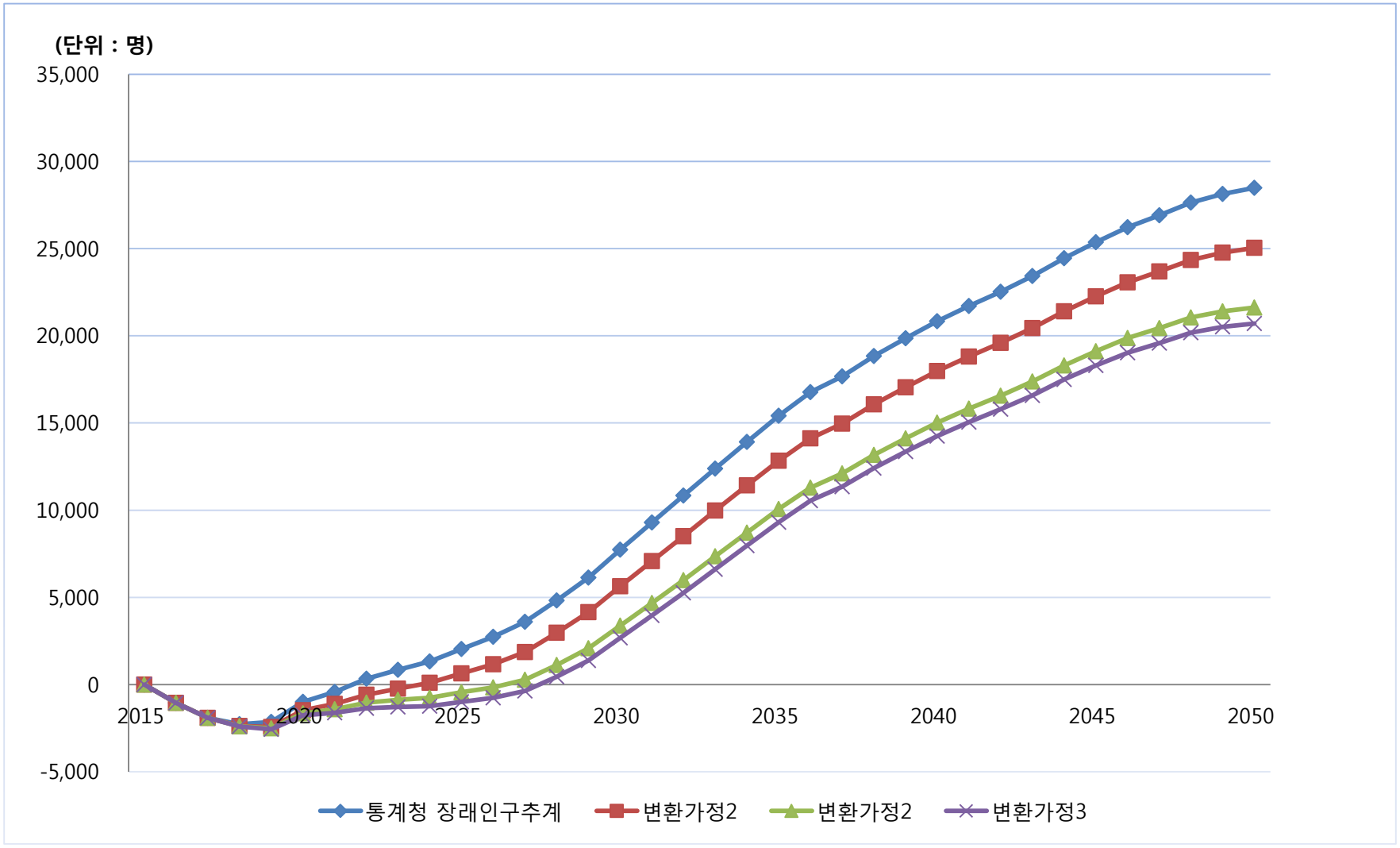
- 산부인과, 소아과, 어린이 집, 유치원 수급 불균형 발생
-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원인력수급 문제
  -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15년 후 5~14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함.
  - 대학과는 달리 정부가 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급규모, 교사/학생 비율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의존할 것.
- 한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과 지원자 간 불균형 문제
  - 2021년부터 대학정원보다 고3학생 수가 적어짐
- 지방 행정 및 재정 문제
  - 일부 지자체 인구 빠르게 감소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가중
- 병력자원 부족문제
  - 2000년 이후 신생아 수는 40만 대 이하 → 20세 남성 전원이 18개월 군복무를 하는 경우 현재 병력 유지 불가능
  - 2037년부터는 수급 불균형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.
-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
  - 2020년대 말부터 (은퇴의사 증가로) 의사의 수가 정체하기 시작.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는 증가 →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.
  - 연령구조의 변화로 각 진료분야별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. (아동질환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는 급증)

대학정원과 고등학생 수: 1965-206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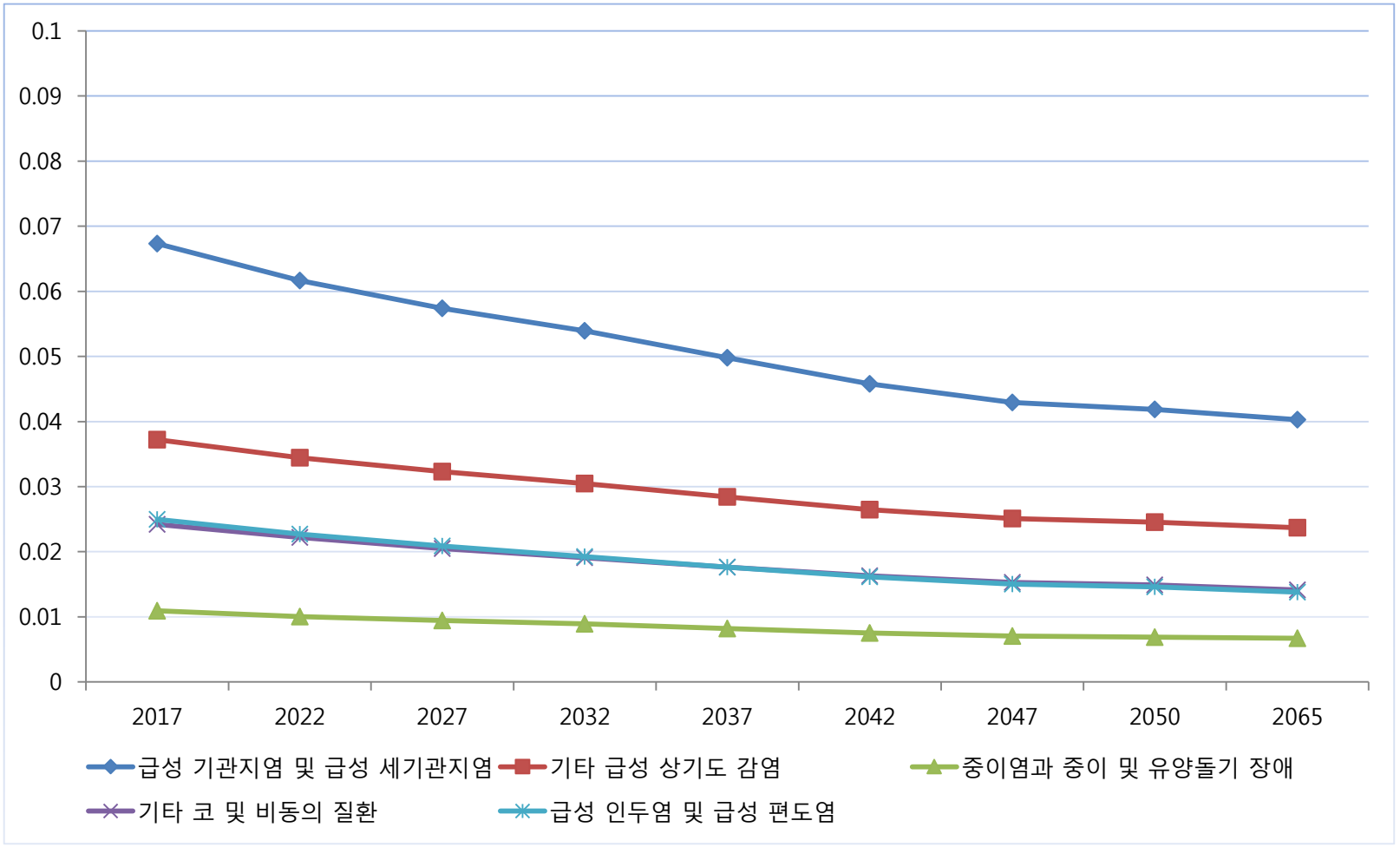


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 유지를 위한 의사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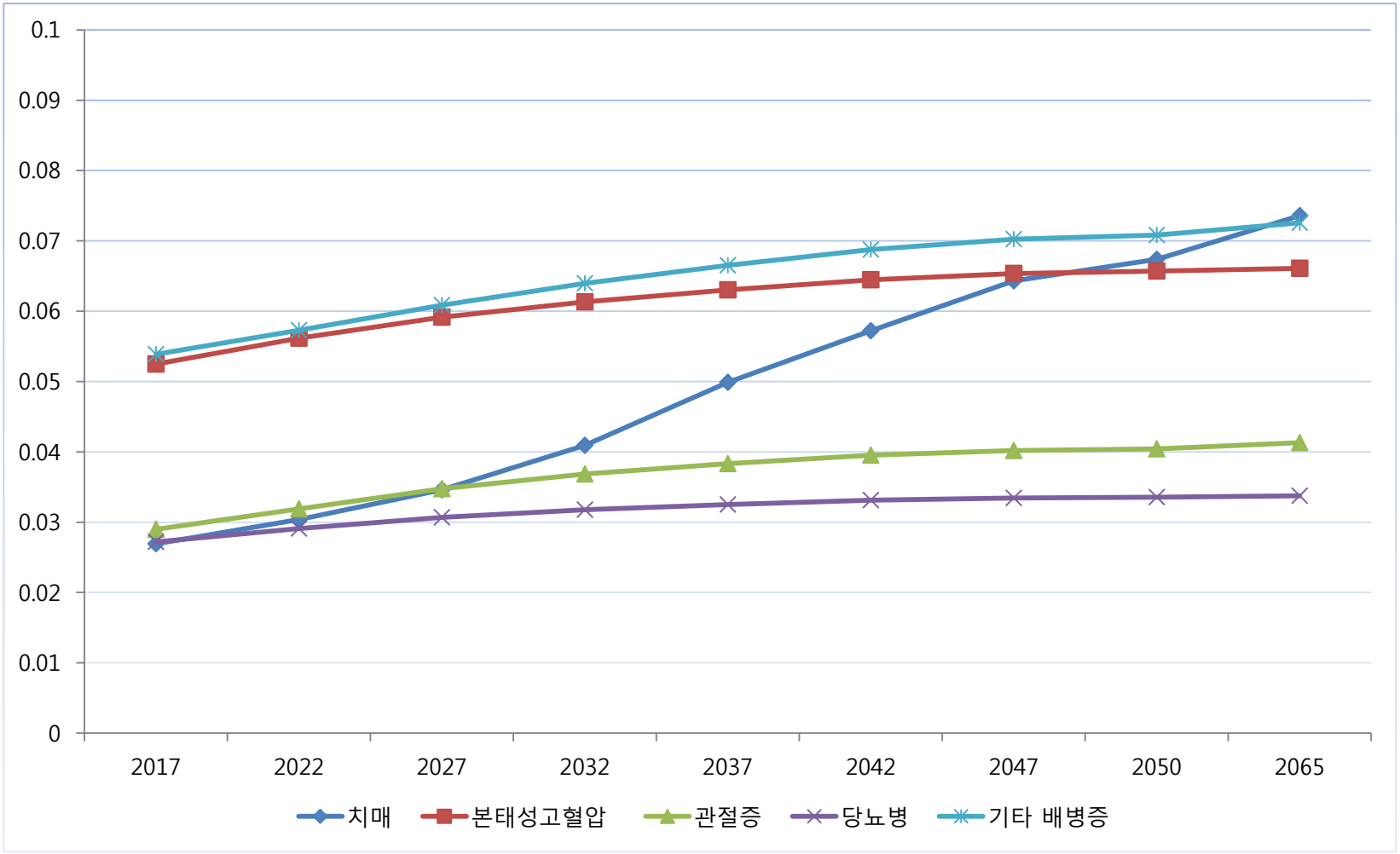
- 2015년 의사 1인당 내원 일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의사 규모 추산



질병별 내원일수 변화 추산 : 0-9세의 주요질환 비중 변화



질병별 내원일수 변화 추산 : 65세 이상 주요질환 비중 변화



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

- **적응해야 할 미래의 가변성**: 결혼, 출생아 수 등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움.
  - 문제의 본질은 인구감소 혹은 인구고령화 자체라기 보다 그 속도임. 적응가능성의 문제보다는 그 비용의 규모임.
  - 결혼과 자녀양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은 청년의 삶의 질, 미래세대의 인적자본 개선과도 맞닿아 있음.
- **적응전략**: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우 인구변화에 의해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제도, 정책 등을 식별하여, 인구변화의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계획.
  - 초·중등교육 제도 및 시설, 의료기관 및 인력양성, 군복무제도, 재정(특히 지방재정), 외국인력 입국 및 고용시스템, 주거 및 도시인프라 등.
  - 노동시장의 경우 교육(특히 대학교육) 개혁, 채용 및 훈련시스템, 임금 및 직무체계, 사회안전망, 이민 및 외국인 고용제도 개혁문제 등이 과제가 될 것
  - 인구변화의 장단기 효과와 제도/법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정하고 시간표를 만들 필요
  - 인구변화의 양상에 따라 적응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 요구됨